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naver.com



2008. 12

통권 150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www.innekorean.or.id



한글 메뉴 및 SMS

한글 메뉴 및 SMS

한글 메뉴 및 SMS



KF750

- 5MP Camera • 3.5G/HSDPA
- Carbon Fiber

KP500 Cookie

- Widget UI • Motion Sensor Game
- Handwriting & Editing

KS360

- 2 MP Camera • QWERTY Keypad
- Touch Screen Dialing

Mini Communicator



KT610

- Symbian S60
- 3.5G/HSDPA
- QWERTY Keypad

윈도우 모바일



KS20

- Windows Mobile 6.0
- 3.5G/HSDPA
- Wi-Fi
- MS Office

비디오 카메라폰



KC550

- 5MP Camera
- DVD Quality Video Recording
- Full TV Out

Viewty



KU990R

- 5MP Camera
- 3.5G/HSDPA
- 120 fps Video Recording

한글 SMS



KF700

- 3MP Camera
- 3 Ways Navigation
- 3.5G/HSDPA

Soul of Touch



KF600

- 3MP Camera
- Dual Screen
- Interactive Pad

한글 메뉴 및 SMS



KF510

- 3MP Camera
- Light Touch Pad
- Scratch Proof Glass

CIC 0-800-123-7777 (Bebas Pulsa)

365 hari
LG CUSTOMER INFORMATION CENTER,
Layanan 365 hari
Jakarta: (021) 727-99777
Surabaya: (031) 549-0777

LG Mobile Showroom & Service Center

JAKARTA: ITC Roxy Mas, Lt. Dasar D31, Tel: (021) 63866287 • Mall Taman Anggrek, Lt.3 Blok E30/34-1, Jl. S. Plummer, Tel: (021) 5639002 • ITC Cempaka Mas, Lt.4 Blok I No.741-742, Tel: (021) 42501978 • Mal Senayan City Jl. Asia Afrika Lt.4 No.6, Tel: (021) 72781540 • Mall Ambassador Lt.3 No.8, Tel: (021) 57939654 • Pacific Place Mall, Lt.3 No.3-29, Tel: (021) 57973055 • ITC Fatmawati, Ground Floor No. 118, Jl. RS Fatmawati No. 39 TANGERANG: Lippo Supremal Karawaci Lt. Dasar No.41-42 Tel: (021) 5473437 BOGOR: Botani Square Lower Ground No.2B Tel: (0251) 8400674

LG Mobile Partner

JAKARTA: Andrew Cellular, ITC Roxy Mas Lt 2 No 108, (021) 63858857 • SMS Shop, ITC Roxy Mas Lt Dasar No. 101, (021) 63558751 • Plaza Semanggi, Lt 2 Blok B No 26, (021) 25538354 • Felisindo, ITC Cempaka Mas, Lt 4 No 184, (021) 42887663, 42888010 • Secho Cellular, Mail Ambassador Lt 3A No 28, (021) 5760030, 5792529 • Cilandak Mall, Lt Dasar, Jl Raya Cilandak KKO II, (021) 78844647 • Pondok Indah Mall, Lt Dasar No.17 Jl. Metro Pondok Indah, (021) 7892339 • PGC Cilitan, Lt 3 No 422-23, (021) 30015013 BOGOR: Centralindo, Plaza Jambu 2, Lt 1 Blok B No 46, (0251) 345456 BEKASI: Dewata, Mega Mall Bekasi Lt 1 No. 261, (021) 88855178



TELESINDO SHOP
Call Center: 021-6253838 / 6007878



전세계 116개 도시 취항으로 더욱 편리해진 대한항공.
미주, 일본, 중국... 어디로 가시더라도 가장 편리한 스케줄로 모십니다.
당신의 특별한 비행, 대한항공의 특별한 네트워크로 약속 드립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Network

대한항공 자카르타지점: 021-521-2180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기 위해
흥겨운 교민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08

송년의 밤

행사내용

- 1부 - 연말 공식행사
- 2부 - 연회 및 공연



행운권 추첨

LCD TV, 대형피아노, 한국왕복티켓, 고급핸드폰 등 푸짐한 상품이 행운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시 2008년 12월 16일(화) 오후 6:30

장소 Hotel Mulia Senayan, Grand Ballroom

참가비 Rp 400,000.-/1인

입장권 판매처

한인회, 무궁화유통(전 매장), 뉴서울 슈퍼, 한일마트, K-마트

입장권 판매일시 11월 17일 ~ 11월 29일 (선착순 1000명)

주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Tel. 021) 521-2515, 527-7539

Fax. 021) 521-2486, 5296-0586

송년의 밤 행사 찬조 행운권 상품을 찬조 해 주실 교민들께서는 아래의 양식에 기입하시고 찬조품과 함께 한인회 사무국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사(인)		연락처	
상품명		상품 수량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 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주말, 잠깐 틈을 내어 반둥으로 떠난 나들이 길. 반둥의 화산과 온천을 둘러보고 푸른 숲과 시원한 공기로 가득한 한 유원지에서 마음까지 시원하게 적셔줄 여섯줄의 물줄기를 만났다. 평범한 광경 그래서 발이 시리도록 차가웠던 냇가에 앉아 수박 띄워 먹던 한국의 시골이 생각났다.

본 사진은 교민인 윤선영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 표시로 1년 동안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기사를 보내주세요!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 /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Email: haninnews@naver.com



시간이 참 빨리도 갑니다.
 벌써 올 해가 저물어 가네요.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뜻하신 바를 이루셨나요?
 아직요?
 괜찮아요. 아직도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게다가 꿈을 꿀 수 있는 또 한 해가 오고 있고요.
 올 한해 교민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한인뉴스가 교민생활에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인뉴스 편집부 일동 배상 -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박남규



편집위원 김은미



편집위원 강영한



편집위원 김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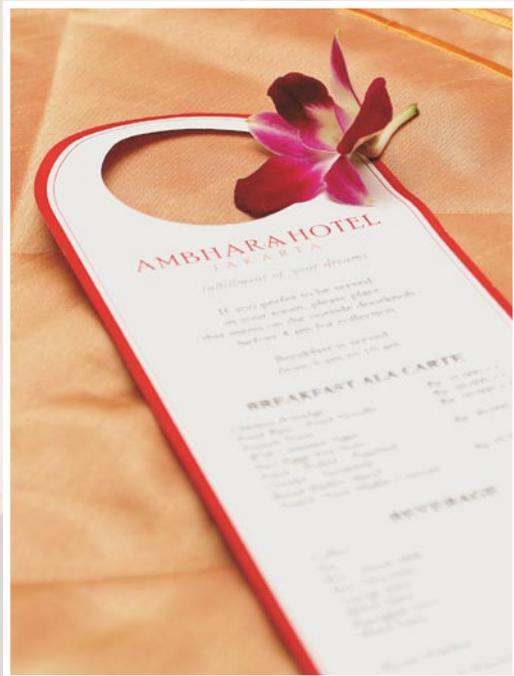
편집위원 김남규



편집위원 김영민

AMBHARA HOTEL JAKARTA

...fulfillment of your dreams



AMBHARA Hotel Jakarta 는,
고급의 200여 룸과 스위트룸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의
편안한 숙식과 휴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은 항상 미소띤 얼굴로 여러분을 대하며,
최고의 요리사가 만들어내는 국제요리와 현지요리
정통의 맛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 Touch of Indonesia

예약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1) 270 0800
ext 1071 or 1073



Jl. Iskandarsyah Raya No.1, Jakarta 12160, INDONESIA
Tel: +62(21) - 270 0800, Fax: +62(21) - 270 0715
e-mail: reservation@ambhara.co.id
www.ambhara.co.id



12



14



56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ttp://www.innekorean.or.id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강영한, 김재민, 박만규, 김은미, 김남규, 김영민



20

10 한인사회 소식

- 한인회 이사, 운영위원 총회 개최
- 한-인도네시아 기술문화협력센터 오픈
- 한국 태권도, 자카르타를 뒤흔들다
-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 유호열교수 초청 대북정책 강연회 열어
- 인니경제전문지 AKSES 한국특집 발간
- 외환은행, 2008 국외장학금 지원사업 펼쳐
- 자카르타 수디르만 로타리, 김호영 대사 초청 조찬모임 가져
- 우리은행 우리 Prestige Club 제7회 정기 행사 개최
-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내 원화, 외화 통장 개설 가능
- 인니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을 전합니다
- 수라바야 아줌마들이 공개한 한국요리비법, 책자로 발행



41



52

20 건강칼럼 - **빠빠노**, 고운 보라색 가지의 빛깔을 가진 과일

22 **해외교포 국내송금 · 투자 안내**

24 재외동포 국내 계좌개설 방법

25 **인니문화탐방** - 반둥 공과대학, 보고르 농과대학

29 인니 대학생의 책 추천글 **연금술사**

30 마음으로 찍은 4인의 속삭임

32 전자여권 및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35 감동을 주는 교민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36 시사포커스 8

'9.30시대'의 전말(顛末) 제4부 최후통첩과 패자들의 말로(末路)

41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마두라 섬 시름들**

44 **한인미술협회 제9회 정기전 개최**

41 인도네시아에서의 자녀 교육 (상)

45 **인도네시아에서의 자녀 교육 (하)**

49 **계약법**(5)

52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6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짱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8

59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 **교육훈련의 중요성**

62 **비즈니스 칼럼**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를 바꾼다

63 경제 리포트

68 **BOOKS**

70 생활정보 가이드

74 **MOVIES**

76 12월 공지사항



25



62



한인회 이사·운영위원 총회 개최

— 한인회 회칙 개정안 심의 후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통과

지난 11월 26일 BSD C.C 에서는 2008년도 한인회 이사, 운영위원 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례, 한인회장 인사말, 사업결산 보고, 중요안건을 다루는 순으로 진행됐다.

승은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인이 금년도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한상대회 대회장이 된 것은 인니 한인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인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송년의 밤 행사에 많은 협조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재민 사무국장은 대민업무, 홈페이지 개편, 문화회관 개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의료혜택 위한 한인증 발급 등 금년에 행해졌던 한인회 주요활동업무와 재정결산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김재유 수석부회장 사회로 한인회 회칙개정안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석부회장은 “현 한인회 회칙은 72년 거류민회 제정된 회칙을, 95년도에 개정된 후 현재 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교민 4만 명, 1,300여 투자기업 등 과거에 비해 급속히 커져가고 있는 한인사회 상황에 맞춰 앞으로 한인회에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보다 한인사회를 위해 한인회에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보다 자발적인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필요가 제기되어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준비됐다.”고 전했다.

회칙개정안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 운영위원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한편 총회가 있기전 한인회 이사 운영위원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골프대회에서 노예범위원이 총-4타를 쳐 우승을 차지하고, 현정규 이사(-3), 조종수 부회장(-1), 김종권 이사(0)가 그 뒤를 이었다.



좌측부터 조원호 KOICA 이사, 김호영 주인니 한국대사, 에르만 수파르노 인력이주부 장관이 오픈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기술문화협력센터 전경. 좌측부터 강의실, 강당, 식당, 기숙사

한-인도네시아 기술문화협력센터 오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우리정부 무상원조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지원한 ‘한-인니 기술문화협력센터(Korea-Indonesia Technical and Cultural Cooperation Center)’ 준공식이 2008년 11월 18일, 동부 자카르타 짜라짜스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는 김호영 주인니한국대사, 조원호 KOICA 이사, 이종선 KOICA 인니사무소장 등 우리측 인사와 에르만 수파르노 인력이주부 장관, 브사르 세토코 인력이주부 차관, 인도네시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동 사업은 2006년 12월 우리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양국 정상간 합의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가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가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사전교육센터 설립 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조원호 KOICA 이사는 축사에서 이 문화협력센터가 양국의 다른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동질감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고 김호영 대사는 센터가 인니 노동자의 한국어 및 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인니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

록 희망한다고 전했다. 에르만 수파르노 인력이주부 장관은 시설 수준이 상당한 이 센터가 양국 문화기술을 전파하는 증거가 되고 본 센터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되어 한국문화 이해폭 정도를 높이고 나아가 양국 협력과 인니 실업문제 해결에도 중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착공하여 1년여만에 완공된 동 센터는 총 4,500평 면적에 강의실, 강당, 어학실습실, 기숙사, 행정동 등 7개 건물로 구성되어, 동시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컴퓨터, 어학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기자재가 함께 지원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금년말부터 5개월간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 커리큘럼 등 교육계획 수립 및 센터운영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어교육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는 21,000명의 인니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인들은 인니 노동자를 부지런하고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태권도, 자카르타를 뒤흔들다



한국의 자랑인 태권도가 인니인과 교민에게 큰 선물을 선사했다. 한국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단장 박원희)은 지난 11월 16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뿌르따미나 체육관에서 태권도 정수를 한껏 보여준 시범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과시하고 양국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것이다.

인니 관중 2천여 명과 교민 백여명이 자리한 이날 시범행사에는 흥겨운 교민 풍물패인 ‘한바패’가 멋진 가락의 공연을 펼쳐 시범단의 화려한 모습을 예견했다.

시범 행사에는 주최측인 주인니한국대사관의 김호영

대사를 비롯, 승은호 한인회장, 제임스 인니 청년체육부 차관보, 노르웨이, 스웨덴 대사등이 내빈으로 참여, 많은 관심을 표명해 태권도를 통한 국제적인 외교관계 강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식전 행사인 자카르타 어린이 태권도 대회와 교민 풍물패인 ‘한바패’의 멋진 공연을 마치고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이 등장하자 장내는 환호와 기대감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 고급 품세와 고난도 발차기 기술과 손기술을 활용한 격파시범의 정수를 보여주며



장내 열기를 더했고, 태권도 기본 자세들을 응용한 코믹연기를 통해 태권도가 신체와 정신 단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운동 프로그램으로의 활용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정통 태권도의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쉽 없이 카메라 셔터와 캠코더를 통해 녹화하려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많이 띄었고 교민 방송국인 KBS World와 현지 방송국인 JAK TV 등 언론들의 열띤 취재 경쟁도 보였다.

시범 대회를 관심있게 지켜본 한 현지인은 “태권도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꼭 배워보고 싶다”며 시범단의 멋진 모습에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현재 인니의 태권도 인구는 과거에 비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군대에서는 5종의 무술 중 선택해야 하는 훈련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범대회 행사를 주최한 한국대사관은 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와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지난 2006년부터 ‘한국대사배 전국태권도 대회’를 열어 태권도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 초엔 한인회 청년분과위원회에서는 인니 특전사와의 협력으로 ‘전국 특전사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위상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한편 재인니 한인회와 대사관은 시범대회가 있기전 만찬 모임을 갖고 멀리까지 한국을 알리려 온 시범단을 격려하고 태권도의 멋을 한껏 보여달라며 주문했다.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 유호열교수 초청 대북정책 강연회 열어

주인니한국대사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회장 김광현)는 지난 12월 2일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고대 행정대학원 원장)를 초청, 대북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광현 회장 등 평통위원, 김남용 공사, 한인회 임원, 한국국제학교 관계자, 한글학교 교사, 반동 한인회장 등 교민 인사 25여명이 참석하여 2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행됐다.

유호열 교수는 “평화통일 안보정책” 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상생,공영’을 핵심으로 ‘실질,실용’을 그 실행 정책으로 진단했다. 또한 유 교수는 최근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유로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 군사분계선 통제제한, 경의선 열차운행 중단 등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정일 건강문제 및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 등 내외부의 상황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남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 벌기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북한이 상생과 공영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믿고 하루빨리 남북간 대화에 임해야 함을 촉구함과 동시에 과거 포용정책에서 관리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2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이성적, 감성적 대북 접근에 영성적인 접근이 더해져야 통일 후 양

국 국민들이 가질 심적부담을 덜고 고통분담에 설득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과 남북관계의 경색원인을 설명해 줌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우리 2세들에게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에 위대한 통일한국의 모습을 부여주길 기대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교민 방송사인 K-TV는 간담회 이튿날인 12월 3일 유호열 교수와의 특별 대담프로그램을 제작, 12월 둘째주부터 한 달간 매주 토,일요일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김광현 평통서남아협의회 회장은 서남아 평통위원들이 앞장서서 본국정부의 안보통일 정책을 교민사회에 알리고 특히 한인 2세들의 건전한 통일교육을 위해 전문가 강연초빙, 자료지원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니경제전문지 AKSES 한국특집 발간

- 김호영 대사 인터뷰 등 게재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국내외 자국기업의 무역 및 경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간하는 경제정보전문지인 AKSES 4/4 분기호에 김호영 대사 인터뷰 등을 포함한 한국 특집을 발간했다.

총 40페이지 분량(표지포함)의 AKSES 지는 표지에 한국을 상징하는 'GINSENG'(인삼)을 표기하고 한국관련 내용을 김호영 대사의 인터뷰 내용 2페이지를 포함 총 9건의 기사를 잡지의 거의 절반인 17페이지 분량으로 게재했다.

김호영 대사의 인터뷰는 AKSES측이 자국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또한 한국의 대 인니 투자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서 "기회는 항상 있다"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관계 평가, 인도네시아 제품의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국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제품 평가, 한국시장에서 인도네시아 목재 제품의 경쟁 가능성, 투자지로서 인도네시아의 가능성,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증대를 위한 조건, 한국내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확대 가능성, 고용허가제 효과 등을 설명한 것이다.

김 대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한·인니 경제협력관계가 급속히 증가(대 인니투자는 04년 4억불에서 07년 8.9억불로, 양국 교역규모는 04년 100억불에서 07년 149억불로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의 자본과 첨단 기술, 인니의 풍부한 자원과 경쟁력 있는 노동력이 보완적으로 잘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협력관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등 외국인의 대인니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세금, 부족한 사회 인프라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으로 주로 에너지와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수입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한

국에서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근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고용허가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한국입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니인들은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한국 내용으로는 AKSES 편집장 및 기자 3명이 한국을 방문 취재한 것으로서 주로 '한국내 인니인 근로자 실태', '인니인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중소기업에서의 기여 정도', '고용허가제 제도 및 한국정착요령', '인니 커피 및 열대과일들의 한국 반입 실태 및 판매현황' 등을 게재하고, 서울 도심의 관광명소로 변한 청계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AKSES지는 매분기별로 5천부 발간되어 인도네시아 국내의 경제관련 기관 및 단체, 유망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의 전 인도네시아 공관 및 경제단체 등에 배포된다.





외환은행, 2008 국외장학금 지원사업 펼쳐

한국 내 은행권 최초의 비영리 자선공익재단으로 2005년 12월에 설립된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는 2008년 11월 7일(금)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현지법인에서, 외환은행 나눔재단의 권택명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University Indonesia, Bogor Agricultural Institute, Jakarta State University, Atmajaya Catholic University 등 4개 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40명을 선발하여 총 US\$20,000를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지난해에는 30명을 선발하여 총 US\$15,000를 장학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외환은행 나눔재단 장학금 후원 사업 계획은 외환은

행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되었으며 2008년도 총 장학금 지급액은 US\$ 63,600 규모이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은 먼 이국나라에서 전해지는 온정에 감사했으며 더욱 더 학업에 매진하여 인도네시아와 한국 외환은행과의 우호적 관계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우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문 「환은장학금」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환은행과 동조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자카르타 수디르만 로타리, 김호영 대사 초청 조찬모임 가져

자카르타 수디르만 로타리(회장 강영한)는 지난달 12일 김호영 대사를 초청하여 수디르만 로타리 현황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었다. 김호영 대사는 로타리인들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한인사회의 결속 역할에 감사를 전하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모범적인 클럽이 되주기를 부탁했다. 수디르만 로타리는 업종, 분야별 대표 2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 Prestige Club 제7회 정기 행사 개최

인도네시아 우리은행(법인장 : 이민재)은 지난 11월19일 50여 회원사와 함께 Global 위기 경영 극복을 위한 단합 행사를 실시 하였다. 세계 경제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회원사간 친목을 더욱 다지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주요 환율 전망 및 위기 시 경영 대책 등을 나누는 행사를 통해 현재의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상호 격려와 자신감을 돋구기에 아주 좋은 행사였다고 전한다. 우리은행 측은 어려운 경제·경영 환경 일수록 이러한 단합 행사를 통해 어려움은 나누고 기쁨은 2배로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에 2009년에는 더욱 큰 규모로 진행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內 원화, 외화 통장 개설 가능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장:이민재)는 제7차 세계 한상대회(10.28~10.30/제주도)에서 추진하였던 재외 동포의 “모국으로 달러 보내기 운동” 실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국내에 달러 송금 시 국내 예금계좌 개설 서비스 및 빠른 송금 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전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국 우리은행의 원화 및 외화계좌 개설을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 동포 달러 보내기 운동”은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인 승은호 회장이 제주 한상 결의문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 세계 한상과 재외동포들이 고국으로 송금을 보내는 운동 중에 하나다.



우리은행에서는 원화 및 외화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시고 우리은행에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니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을 전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 인니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했다. 박물관 투어, 스쿨 프로그램, 사진수업 등 다양하게 전개된 한달여간의 소식을 전한다. 헤리티지에 관심있는 교민 분들은 언제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며...

박물관 투어

11월 29일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도서관에서 '역사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신상석 한인예총 회장의 특별한 강의를 있었다. 이 외 박물관 투어가이드 정기 스타타디 모임과 박물관 신관 안내 책자의 도자기, 석상관의 유물 및 역사와 칼리만탄의 다약 민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학교 프로그램

11월 14일(금) 초등학교 2학년 110여 명과 11월 19일(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2학년 30명, 중학교 특별활동반 15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열대 과일에 대한 발표를 진행됐다.



사진 수업

자카르타 한 카페에서 몇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그 동안 찍은 사진 중 몇 개를 함께 나누어 보고 접사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12월에는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의 외국인 회원을 초대해 출사를 나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 한국어 투어 안내

모나스 광장 맞은편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하고 훌륭한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를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속의 한국어 가이드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다.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아침 9시 30분에 시작되어 약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이 박물관 투어는,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에서 정규 가이드 과정을 마친 다섯 명의 한국인 가이드들이 인도네시아 문화 알람이로 무료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과 친구와 때로는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매혹적인 이 나라 문화에 흠뻑 빠져 보는 것도 모처럼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되며 사전 예약은 필요 없음. 정해진 시간에 항상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할 수 있다.



공동 회장: 이종숙 0812 838 1294, 이수진 0816-1300-210

수라바야 아줌마들이 공개한 한국요리비법, 책자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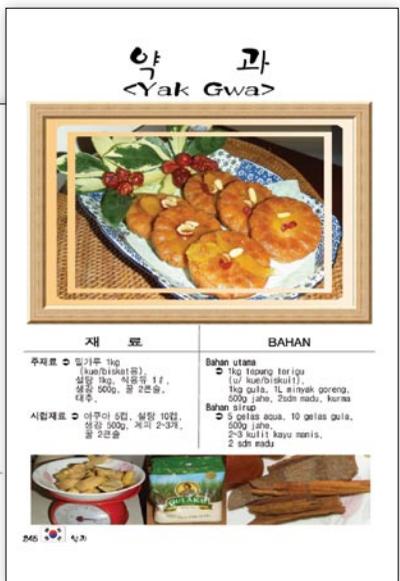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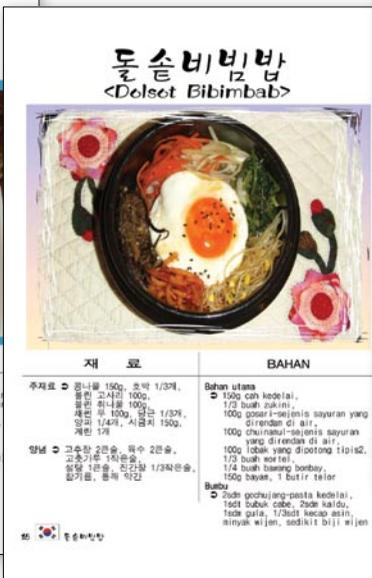
고국을 떠나 인도네시아에 살다보면 먹는 음식이 한국 식도 아니고 서구식도 아니며 때로 중국식, 일본식 거가다 인도네시아식까지 마구 뒤섞여 국적 불명의 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곳에 살면서 도우미들에게 조리를 맡기다 보면 어느새 그나마 한국에 있을 때 할 줄 알았던 음식 솜씨마저도 가물가물 해서서 막상 음식을 하려 하면 헛갈리기도 하고 음식을 해놓고도 이전의 그 맛이 나질 않아 속상해 하는 경우도 많다. 어쩌다 한국을 다녀오시는 분들께서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신 음식을 맛보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렸던 옛날의 미각이 되살아나며 그 맛을 내 보려고 준비를 하다보면 또 재료나 양념이 여의치 않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수라바야 AWCA(아세아 여성 기독교인 연합회)에서는 여러 회원들은 정성스런 노력으로 약 100가지 한국요리 비법을 모아 한편의 책인 <수라바야 아줌마들의

밥상>을 펴냈다. 총 292쪽의 칼러판으로 제작된 이 요리책은 한국어와 인니어 두 언어로 쓰여져 현지에 한국의 요리를 소개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요리책 문의 : 전경숙 (081-733-7082)

AWCA에 대하여

AWCA는 수라바야의 '아세아 여성 기독교인 연합회'로서 이번 요리책 발간 외에 많은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AWCA는 수년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던 Dian Sakti 기독교 중학교를 지속적으로 후원, 13명의 학생으로 폐교의 상황이었던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워 현재 60여명 학생, 지역의 6위권 안에 드는 학교로 만들어 가고 있다.





빼빼노

고운 보라색 가지의 빛깔을 가진 과일

솔한의원 원장 강효정, 김효영
vitavic@hanmail.net/021-7278-7410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대형 슈퍼마켓에 있는 과일과 야채 코너를 돌아 보았습니다.

새로 들러온 품종은 없는지, 제철로 나는 것은 무엇인지……

대형슈퍼의 과일과 야채코너는 계절을 느낄 수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미세한 철의 변화를 읽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사랑 받고 있어서 대여섯 상자를 풀어 놓은 사과, 수박, 망가, 멜론 등의 주 코너를 지나서 작은 묶음으로 자신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코너를 돌아 보니 그 동안은 어디서든 그리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예쁘장한 과일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 과일을 들고 한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니 옆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 “부아 빼빼노.. 부아 빼빼노..”하면서 친절하게 이름을 알려 주고는 한 번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생긴 모습이 가지가 살이 찌서 좀 뚱뚱해졌다고 해야 할지, 아님 가지가 잠깐 호박이나 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2세라 해야 할지…… 일단은 고 녀석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없었던 과일인 것만으로도 나에게서는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라 덤석 몇 개를 잡고 계산대로 가서 그 값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buah pepino'와의 우연한 만남..

그 만남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과일 여행’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부아 빼빼노의 학명은 *Solanum muricatum*입니다. 빼빼노의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Magnoliophyta), 쌍떡잎식물강(Magnoliopsida), 가지목(solanales), 가지과(Solanaceae)입니다. 가지과의 식물들은 우리의 삶과 친숙한 가지, 고추, 토마토를 비롯하여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이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자양, 강장, 당뇨약으로 널리 알려진 구기자(枸杞子), 소염과 해열작용이 강한 지골피(地骨皮), 진해작용과 이뇨작용이 있어서 널리 이용되는 산장근(酸漿根), 해열 이뇨 각종암 치료에 유용한 용규(龍葵), 잇몸 부종에 쓰는 마령서(馬鈴薯), 진통제 백혈병, 위암, 간암, 자궁암에 쓰고 있는 백영(白莢)등이 모두 이 가지과의 식물입니다.

빼빼노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입니다. 고대시대부터 안데스 산맥일대의 지역에서 재배해 왔습니다. 현재 칠레,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다양하게 품종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슈퍼마켓에서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빼빼노는 스페인어로 페피노 도루세(pepino dulce)라고 불려 지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페피노(pepino)는 오이(cucumber)라는 뜻이고, 도루세(dulce)는 달다(sweet)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 맛과 향이 오이와 많이 닮았고 단맛이 있어서 ‘달달한 오이’라고 별칭을 주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빼빼노는 1m정도 자라는 다년생 관목형 초본성 식물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페피노, 참외배라 부르며 영어로는 그 맛과 생김새가 멜론과 유사하다고 하여 pepino melon, melon pear,

melonshrub, sweet cucumber, tree melon 이라 불립니다.

부아 빼빼노의 겉 표면은 밝은 미색에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긴 모습은 둥글둥글 잘 빠진 달걀모양, 조금 더 매끈하게 빠진 달걀모양, 가지가 덜 자란 상태에서 똥똥해졌거나 약간 비틀어진 그런 모양입니다. 겉으로만 보아서는 토마토와 가지의 매끈하고 반질반질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보면 토마토를 잠깐 데쳐서 벗겨낼 때처럼 손으로도 그 겉을 따라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칼로 육질을 반쪽으로 잘라보면 바나나를 자를 때처럼 큰 힘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노란 빛을 띠는 육질과 함께 가운데 십여 개 박혀 있는 씨를 볼 수 있습니다. 씨는 육질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다른 과일 씨에서와 같은 딱딱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육질은 수분이 많고 부드러우며, 풍기는 맛과 향은 상큼하여 멜론, 오이와 유사합니다. 육질의 맛은 약간의 단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당도는 6~8정도뿐이 안되니 크게 달지 않습니다. 보통 바나나의 당도가 16, 사과와 당도가 13, 포도의 당도가 16정도이니 빼빼노의 당도로는 단 맛을 살짝 느끼는 정도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부아 빼빼노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性)은 한(寒)하고, 미(味)는 미감(微甘)하며, 귀경으로는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 됩니다.

뛰어난 한성(寒性)으로 인해 해열, 이뇨작용이 있어 더위로 생긴 열을 풀어주고 대사순환을 촉진시키며 소변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또한 갈증을 없애며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병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감(微甘)한 성질은 비위의 기운을 도와주니 소화기의 울체를 풀어주고 소화기능을 돕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겠습니다.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으로 귀경하는 효과가 있으니, 심장의 열을 꺼서 소변의 배출을 원활히 하는 특징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부아 빼빼노(buah pepino)를 그 이름 외에도 부아 뿌스삐따(buah puspita)라고 부릅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신장결석으로 오랫동안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부아 빼빼노에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여 항산화 비타민으로 부르는 베타카로틴(beta-carotene)과 비타민 C가 각각 100g당 26.609mg과 25.119mg이 함유되어 있으니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92%의 수분함유량으로 수분의 양이 풍부하니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의 기능을 돕는데 그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6~8로 높지 않아 저당식품으로도 안성 맞춤이니, 부아 빼빼노는 앞으로 건강식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촉망 받는 과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아 빼빼노는 겉표면이 밝은 미색에 노란빛 또



는 황금빛이 도는 것이 맛있습니다. 보라색 줄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끝까지 그어져 있는 것이 좋으며 집에서 보관 시 일주일정도 상온이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부아 빼빼노를 식후 디저트나 샐러드에 넣어 같이 야채랑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빼빼노를 얇게 썰어 그 위에 설탕을 조금만 뿌려먹으면 아이들에게 주기에는 아주 맛있는 간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보랏빛의 향기로 매끈한 몸매를 자랑하는 부아 빼빼노..

아직은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은 아니나, 곧 널리 사랑 받는 과일이 되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색과 은은한 달콤함이 곧 우리네 삶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해외교포 국내송금 · 투자 안내

<제공: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I. 본인명의 예금계좌로의 송금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금융기관 신탁할 경우 금액상 제한은 전혀 없으며,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 없음

○ 예금계좌는 아래 세가지 종류에서 선택 가능하며, 각 계정의 특성에 따라 향후 예금회수 절차가 상이

① 대외계정

-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보통예금/정기예금으로 구분

② 비거주자유원계정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 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동절차는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조세부과)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이중과세 방지)

※ 在美교포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3.2%(주민세 포함) 부과, 在日교포의 경우 한-일 조세조약

에 따라 10%(주민세 포함) 부과, 기타국가는 조세조약 현황에 따라 상이

II.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증권투자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제한 없으며,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음

○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함

※ 주식투자·채권투자·펀드투자 모두 투자절차는 동일

- 상임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투자전용계정을 직접 개설하여야 하며, 향후 회수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조세부과) 원칙적으로 capital gain에 대하여 비과세되나, 구체적으로는 투자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 과세된 부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이중과세 방지)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원천징수)

※ 在美교포 16.5%, 在日교포 15%,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② 채권투자

- 이자소득*은 과세되고, capital gain은 비과세

* 채권 명목가액 대비 명목이자율을 통해 계산

※ 在美교포 13.2%, 在日교포 10%,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국내송금 · 투자

③ 펀드투자

- 펀드투자시 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주식투자로 인한 capital gain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과세제외
- ※在美교포 16.5%, 在日교포 15%,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에 자본거래 신고한 후 은행에서 송금액 수령

- 이 경우 내국인이 향후 교포에게 재송금시 별도의 자본거래 절차는 필요없으나, 이자소득세*가 발생

Ⅲ.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사전신고 필요

- 증여 또는 금전대차거래 두 종류가 가능한 바, 각기 상이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외환거래 절차가 적용됨
- 다만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하여 당해 은행을 통하여만 송금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까지 자본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되어 편리한 송금이 가능

□(조세부과) 증여인 경우 증여세, 금전대차거래인 경우 국내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원천징수)가 부과됨

① 증여거래

- 내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송금가능하며,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증여세 부과대상임
- 이를 다시 증여형태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금 이전에 “증여계약”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송금 가능함

〈 증여세 부과개요 〉

- 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② 금전대차거래

- 내국인에게 대출하는 형태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내국인이 한국은행

*在美교포 13.2%, 在日교포 10%,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Ⅳ. 거래정보 보고

□(외환전산망 보고) 1천불 이상의 모든 자금흐름은 송금자·송금일·사유·금액 등이 외환전산망에 보고됨 (통계목적)

- 은행 창구에서 지급·영수시 즉시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에 보고

- 동 보고는 통계작성 및 자금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조세부과, 혐의거래 파악 등과는 무관함

□(국세청 보고) 건당 1만불 이상의 자금흐름과 환전실적이 보고됨

- 증여 등 내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원화 2천만원, 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중 혐의거래가 보고됨 (자금세탁 방지목적)

-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직접 보고

-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시에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음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

재외동포 국내 계좌개설 방법

〈외환은행〉

신분증 지참 현지지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 가능.
가장많은 해외 지점망을 갖고 있으며 계좌개설 용이함.

1. 예금계좌 개설 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한국내 외환은행 방문하여 직접계좌 개설
(서초동지점 : 서울 지하철 교대역 9번출구에 소재)
- 외환은행 해외점포를 이용하는 방법
 - 해외지점(Branch) 앞 신청
해외지점 직원이 신청인의 실명확인 및 서류 접수후 한국내 지점(서초동지점)으로 연계
 - 현지법인(Subsidiary),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본국 파견 직원이 실명 확인 및 서류 접수후 한국내지점으로 연계(당행 현지법인 및 사무소는 명칭에 'CORP, S.A., A.G, LTD, Representative Office, KEBOC' 등으로 표시되어 있음.)

2) 한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좌개설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 확인필 위임장을 지참하여 한국내 외환은행지점(서초동지점) 방문하여 계좌 개설 신청

2. 예금계좌 개설후 통장의 관리

- 신청인의 요청 주소로 통장 우송
- 외환은행 해외점포(해외지점, 현지법인, 사무소등)를 경유하여 신청인이 직접 수령.
- 신청인의 요청에 의거 당점에서 보관예수(당점에서 개봉예수하고 보호예수증서를 별도로 우송)

3. 예금 해지시 송금 방법

- 예금주가 직접 외환은행 한국내 점포(서초동지점) 방문
- 외환은행 해외점포앞 해지 신청 의뢰
- 외화예금 자동대체 서비스 이용 고객으로 사전에 등록된 고객은 팩스에 의한 해지 신청 및 송금신청 가능.

〈우리은행〉

신분증 지참 현지지점 방문, 신청서 작성하여 개설 가능.

1. 대상 : 해외교포(이주자) 등 비거주자

2. 예금종류

- 원화예금(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보통예금, 개인 MMDA, 정기예금
- 외화예금(비거주자 대외계정) : 외화보통예금, 외화 MMDA PLUS, 외화정기예금

3. 계좌 개설 순서

- 해외영업점을 방문하여 예금신규서류 작성
- 실명확인(본국직원)

- 예금신규서류 국내영업점으로 송부
- 비밀번호 없는 예금신규
- 해외영업점으로 예금통장 송부
- 해외영업점은 본인확인 후 통장 교부(고유번호 고지)
- 고객이 직접 ARS를 통해 예금비밀번호 등록

4. 준비서류

- 거대신청서(은행 양식)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5. 이자소득세

-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거주국가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하나은행〉

현지 영업점에 있는 지역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영업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아 국내은행으로 송부하여 신청 가능

1. 해외교포의 국내예금 가입

: 비거주자 전용계정(대외계정) 사용 필수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 후 '자금출처확인'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원리금 전액을 자유롭게 해외로 재송금 가능합니다.

2. 대상 고객

비거주자인 해외이주자, 영주권자, 해외장기 체재자, 외국국적 취득 교포(시민권자) 등

3. 조세 부과

예금의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되며,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 국가의 조세협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소득 과세 시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이중과세 방지)
재미교포 13.2%(주민세포함), 재일교포 10.0%(주민세포함), 기타국가는 조세협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4. 국내 계좌 개설 및 거래 방법

-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지점, 사무소, 현지법인)을 이용할 경우-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류 작성 가능
- 국내 대리인 위임을 통한 거래(국내은행 해외영업점이 없는 지역)
 - 영주권자 및 국민
 - 해당지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위임장 발급 받아 국내은행으로 송부
 - 국내 대리인 또는 은행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
 -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 동포
 - 위임장을 작성 후 공증을 받은 후 국내은행으로 송부
 - 국내 대리인 또는 은행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



반둥 공과대학 ITB (Institute Technology Bandung)

글 : JIKS 사회과 교사 사공경

인도네시아 미래 건설의 역군들과 함께

ITB는 1920년 7월 3일 De Technische Hoogeschool te Bandung(THB)이라는 이름의 단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비해 Gajahmada대학이 1949년 12월, Universitas Indonesia(UI)가 1945년(1945년 네덜란드 정부가 설립했으며 독립 후 1950년 인니 정부에 양도함)에 설립되었으니 반둥공대는 명실 공히 인도네시아 최고(最古)의 대학인 셈이다. 그리고 1959년 3월 2일에 ITB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반둥은 교육의 도시라고 불린다. 적어도 16개의 종합대학과 45개의 전문대학(2008년 기준)이 있으며 유명 대학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반둥 공대(ITB)인데 이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대학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이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 건물도 크고 캠퍼스가 상당히 넓다. 학교 입구에 꽃으로 둘러싸인 시계탑이 특히 인상적이다.

ITB는 독립전쟁의 영웅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라고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수카르노이며 지금도 변함없이 많은 인재와 문화인을 배출해 명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도자기 예술가 Widayanto, 인도네시아의 대표 조각가 Nyoman

Nuart, 국제적인 예술가 Sunaryo가 있다. 반둥에 있는 비행기 공장(IPTN)에도 많은 인재들을 보내고 있다. 또 반둥이 자랑하는 대학으로는 민족 지도자 꾸스마 스만뜨리가 창설한 UNPAD(Universitas Padjadaran)가 있다. 이 대학 역시 수많은 문화인을 배출하였으며 ITB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창설하는데 구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ITB의 역사

반둥 공대는 반둥 중심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곳에 있는 단과 대학들까지 합쳐서 약 77만m²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학교육의 장으로서, ITB의 전신 단과대학 THB는 반둥공대의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20년 기술학교 THB가 반둥에 설립되었는데 1940년대 중반에 Kogyo Daigaku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5년에 인도네시아대학(UI)에 ITB의 분교 정밀예술학부를 포함한 기술학부를 가지게 되었고 그 본부는 자카르타에 두게 되었다. 50년대 초에는 ITB 수학과 자연과학부 또한 UI에 분교로 신설하게 된다.

1959년 현 반둥공과대학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서



반둥 인도네시아의 미래, ITB의 학생들

과학, 기술, 정밀예술 등의 교육, 연구, 사회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수학 및 자연과학부, 생명공학, 약학, 지구과학, 산업기술, 전기공학, 환경공학, 건축 및 정책개발, 예술 및 디자인, 경영학 등의 여러 학부가 있다.

특히 1947년 8월 1일 UI대학에 분교로 설립한 반둥공대의 유명한 예술 및 디자인 학부는 UI대학에서 발전을 거친 후, 1984년 반둥공대에 개강하게 되었다.

1963년에는 도자기 예술학과가, 1964년에는 커뮤니케이션 예술학과가 개설되며,

1965년에 실내예술이 건축내장예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반둥 공대의 주변을 산책하면서 오래된 반둥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까이 있는 동물원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다.

반둥공대 교정에서 학생들을 보며 다시는 되돌아갈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대학 시절의 나를 떠올려본다. 이제는 별이 되고 꿈이 되어 내 가슴에 살아난다. 자유를 찾아 새로운 내면의 문을 두드리는 맑은 이슬방울을 교정에서 만나며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만난다. 교육이 그 나라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말이 맞다면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캠퍼스의 아름다운 꽃나무들과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분수대를 보면서.

분수대 앞에 있는 독립 운동가 수카르노 대통령의 기념탑이 ITB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다.



ITB 정문



반둥 수카르노 대통령 기념탑

반둥 공대 ITB

주소 : (사무실) Jl. Tamansari No.64, Bandung

(캠퍼스) Jl. Ganesha No.10, Bandung

전화 및 팩스 : (022) 250-0935

홈페이지 : <http://www.itb.ac.id>

비행기 공장 IPTN

(PT. Industri Pesawat Terbang Nusantara)

주소 : Jl. Pajajaran No.154, Bandung

전화 : (022) 604-3277



보고르 농과대학

(Institut Pertanian Bogor)

보고르 국립농대는 Universitas Indonesia(UI)와 함께 인도네시아 5대 대학에 들어간다. 196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농학, 수의학, 수산해양과학, 축산학, 임학, 농업공학과 기술, 수학, 자연과학, 경제경영학, 그리고 인간생태학 등 9개의 학과가 있다.

2004년 10월 3일 Susilo Bambang Yud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선출되기 이틀 전 보고르 농대에서 농업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 제목은 “가난과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역 농업 발전: 재정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었다.



두부 공장

처녀의 수줍음이 흐르는 체험 학습장

(Kampung Cinangneng)

보고르에는 유기농 농사를 하는 환경 친화적인 장소가 많다. Kampung Cinangneng은 그 중 하나로 보고르 시내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다. Cinangneng(천천히 흐르는 물)은 이 마을에 있는 강 이름으로 처녀의 속삭임처럼 조용하게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 있는 Hester Basuki Guest House에서 체험 학습장을 운영한다. HB Guest House의 주인은 Mrs. Hesje Hehoewat로 1994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시골의 신선한 공기와 음식, 아름다운 경치, 시골 햇살에 무르익은 단순한 삶의 여유를 맛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이 마련되어 있다.

- Cinangneng 시골 마을 구경 : 논, 기계 경작, 가내 공업(대나무 수공예 등), 시골 마을의 삶, 논밭 걷기



모내기 체험

- Cinangneng 강 건너기 : 강에서 물소 목욕도 경험



- 전통 문화 체험 : 순다 가믈란, 순다 춤, 전통 과자 만들기, 눈에 나갈 때 쓰는 모자인 caping에 그림 그리기, 잎사귀 인형 만들기, 순다 음식 만들기 등



모자에 그림 그리기



순다 가믈란 체험



순다 전통 춤

작은 마을들을 둘러싼 논밭의 초록들이
세상 끝에 닿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순다 가믈란 선율에
초록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수줍게 흐르는 Cinangneng 강과 푸른 하늘까지 나는
거침없이 넘나들고 있다.

주소: Jl. Babakan Kemang Rt.01/02 Cihideung Udik,
Ciampea, Bogor

전화: (021) 765-7217, 766-2573, (0251) 621-895

156~158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공지사항



156~158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장소 / 일시 : 미정

1월 중 세차례 문화탐방이 계획되어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참 잘 썼죠?

한인뉴스 담당자분께,

안녕하십니까,
우이 한국학과와 임중보입니다.

우리 학생의 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학과와 많은 학생들이 학과 사무실/한국식당에서 '한인뉴스'를 읽고 있으며, 졸업후에 한인뉴스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보내 드리는 파일은 모두 3개이며, 사진과 학생글 스캔한 것입니다.

학생의 이름은, 다라 아운다(Dara Ayunda)이며 우이 한국학과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이 글은, 제가 강의하는 3학년 쓰기 시간에 도서추천의 글 연습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인뉴스와 우이 한국학과와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중보 Dream.



다라 아운다(Dara Ayunda)
U.I 한국학과 3학년 재학중

책을 추천하는 친구

연금술사

이 소설 작가는 브라질 사람인데 이름이 파울로 코엘료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가 쓴 이 작품은 전세계 120여개 국에서 번역되어 지금까지 5천2백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Harper Collins 출판사는 1993년에 이 작품을 출판했습니다.

이 소설은 안다루시아에서 목동의 유랑생활을 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인 산티에고가 신학수업중에 단지 여행에 대한 열망으로 중당하고 부모를 떠나 자진해서 목동의 유랑생활을 하면서 시작되는 일종의 성장 소설입니다.

어느 날, 유랑생활을 하는 산티에고가 이집트의 보물을 찾게 될 거라고 말 하는 꿈을 두번째 꿩습니다. 그래서 산티에고가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의미가 있을까?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산티에고는 한 집시 여자에게 그 꿈의 뜻을 물어 봤습니다. 그 집시 여자는 산티에고에게 그 꿈을 진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집트에 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산티에고는 그 집시 여자의 말을 믿지 않고 이집트에 가지 말지 아직 망설입니다. 그 때 산티에고는 우연히 살렘 왕을 만나서 그 살렘 왕의 충고를 받아 들여 양떼를 팔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 때 부터는 산티에고의 모험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용기를 갖고 있는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만하게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의 내용끝에 연금술사 덕분에 산티에고는 여행이 끝나고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일까? 돈이나 금이 아니라 사실 보물은 바로 그 여행입니다.

그 여행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티에고처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읽은 다음에 "꿈을 가진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무주는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 준다고.."라는 말은 이 작품의 기본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내용을 가진 소설인데 어려운 대신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너무 두껍지도 않고 149 페이지인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작품입니다.

Whispering photo exhibition



나는 누구인가? 마음으로 찍은 4人의 속삭임

자카르타의 끄망지역, 한국의 이태원과 인사동이 섞여 있듯 외국인들을 접하는게 어렵지 않고 다양한 문화공간과 문화행사가 줄을 잇는다.

지난 11월 28일 끄망의 한 갤러리, 한국 여성 4인이 펼치는 사진전시회가 있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의 시간을 한 선생의 사진 지도를 받아 온 끝에 작은 용기를 내어 전시까지 열게 되었다는 그들은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문을 통해 얻은 그들의 생각과 철학을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었다.



권정란(JIKS 교사)

10일간의 깔리만판 여행. 강가에 드리워진 다리 그림자가 만들어낸 그림 같은 사진이 찍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정했다 생각했지만 그림자와 주변의 노출 차이 때문에 운 좋게 찍혔다. 카메라는 일명 똑딱이 일반 카메라. 화학교사이기도 한 그녀는 “식물에서 탄인성분이 유출이 되어 강물에 녹아 들어가 있어 이런 색깔을 내게 된다. 흙탕물이 섞이게 되면 초콜릿 색으로 바뀐다.” 며 역시 설명이 전공과 닮아있다.

“전시를 망설이기도 했지만 대단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며 내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이성숙씨는 길과 물을 좋아한다. 길을 보고 뭔가 다음에 이어주는 길. 또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철학적인 의문, 곧은 길보다는 구부러진 길에서 인생과 닮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비어있는 공간이면서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공간에서 정서를 발견한다. 외롭고 쓸쓸한 느낌의 공간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정서를 표현해내고 있다. 이성숙씨 옆에 있는 사진에서 주제는 그늘과 벤치다. 인생을 보는 정서와 시각을 통해 구도를 잡는다. 칼라는 패턴과 디자인적 요소로 효과적이고 제 사진의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내용에 대해 더 중심을 두기 때문에 흑백을 선택하게 됐다고 한다.



이성숙(AIS 교사)



이 미(JIKS 교사)

인물 위주이다. 인물 공간을 넓게 활용한 사진이 주를 이룬다. 사진을 하다 보니 예술적 갈등도 있었다.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으나 전시 오픈을 할 때 너무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알몸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색다를 경험과 자신에 대한 재해석의 기회가 되기도 했고... 역시 전공 탓일까 인물 사진 특히 순간적인 스피드를 요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즐겨 담는다. 단시간 내 포커스를 잡아서 상대방이 날 못 느낄 때 순간을 잡아내는 능력이 요구되지만 상대방이 찍힌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의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빙겨나가는 순간의 표정을 포착해낸다. 하지만 사진을 담아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감정적 교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자카르타 슬리피 지역에 살면서 아이의 사진을 찍다가 그녀의 일상적인 삶을 담기 시작했다. 90년대 인도네시아에 와서 자동차만 타고 다녔는데 사진기를 들고 거리를 걷기 시작하면서 일상의 풍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비춰지는 하늘과 땅, 사람들 모습, 몇만 루피아면 해결되는 말 달구지...

한번은 따만양그렉 근 건물목 앞 아침 7시, 길 건너기에 바쁜 사람들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곧히 자고 있는 아이를 발견. 대조적인 상황이 인상적이어서 카메라에 담았지만 빨리 건너가라고 깨우고 싶었다고...



안혜진(가정주부)

전자여권 및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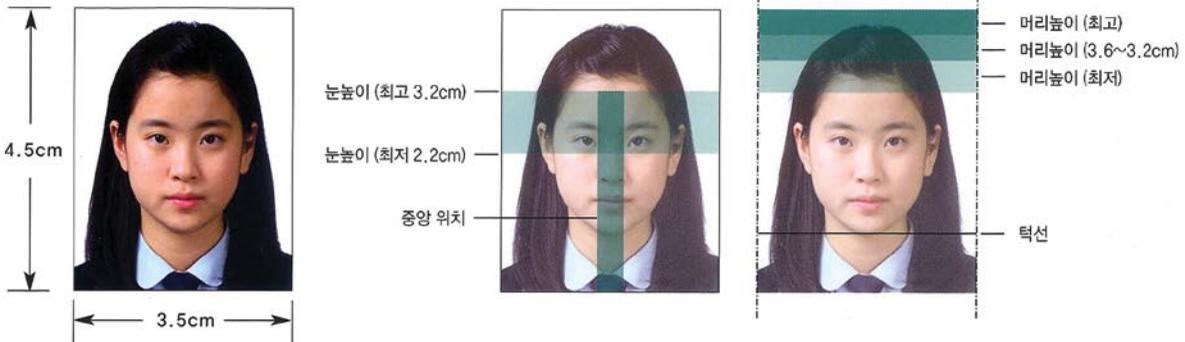


11.24일 부터 시작되는 전자여권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표준 사진〉



○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해서는 안됨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도 사용할 수 없음

○ 사진크기·비율

- 사진크기 : 3.5cm(가로)x4.5cm(세로)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5~3.5cm(세로)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함

○ 얼굴·눈동자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됨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해서는 안됨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함

○ 안경

- 안경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됨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됨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됨

○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가발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됨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됨
- 악세서리를 착용하는 경우 악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 배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됨

○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됨
-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됨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됨

- 유아(만 7세 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함
 -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함

- ②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t.go.kr>) 「전자민원」 → 「양식다운로드」 → 「공관별민원서식」 란에서 칼라 프린터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여권 발급신청서

전자여권 발급신청서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원본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

3. 본인 직접 방문

-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 질병, 장애 등에 의한 경우 및 18세 미만자에 경우에는 대리 신청 가능

- 전자여권 발급신청서는 당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 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참여/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이나

4. 수수료

여권종류 및 유효기간		수 수 료	대 상
일반 여권 (거주여권 포함)	10년	Rp.605,000	- 18세 이상 희망자
	5년	Rp.517,000	- 8세 이상 ~ 18세 미만
		Rp.385,000	- 8세 미만
5년 미만	Rp.165,000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병역관련해당자	
사 증 추 가		Rp. 55,000	- 1회만 가능



전자여권 및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 전자여권이라는게 뭐가요?.

답) 여권표지 안에 전자장치를 내장하여 여권 정보를 수록한 여권을 말합니다.

- 여권 표지안의 전자장치에는 현재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수록되는데, 그 목적은 위변조를 방지하고 여권이 도용되는 사례를 막으려는데 있습니다.
- 전자여권을 사용하면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지고, 각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전자여권 전용 출입국 창구를 이용, 더욱 편리하게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언제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합니까?

답)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접수는 11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 전자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대략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전자여권은 대사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외교통상부 본부 여권과에서 제작한 후 이를 외교행낭으로 대사관에 송부하게 되므로 동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 및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 이제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을 경우이거나 18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 질병인 경우에는 병원발행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제출

● 신청한 여권을 찾아갈때도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까?

답) 여권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시에는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원본), 위임인의 신분증(원본)이 필요합니다.
- 위임자(대리인 수령자)는 반드시 한국인 이어야 합니다

● 전자여권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구여권 원본, 체류허가증 원본, 사진2매가 필요합니다

-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전자여권 사진은 국제표준화 규격 사이즈이므로 이점 유념하여 사진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권은 여권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 전자여권의 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여권은 동반추가 가능합니까?

답) 전자여권의 동반추가 불가능합니다.

● 종전처럼 전자여권도 사증란(페이지)추가 가능합니까?

답) 1회에 한하여 24페이지 사증란(페이지)추가 가능합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여권(사진전사식, 사진부착식)도 사증란추가 가능합니까?

답) 네, 물론 소지하고 있는 구여권도 사증란추가만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 발급신청서는 반드시 칼라로 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우리대사관에서 교부되는 칼라로 된 신청서 또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칼라프린터로 인쇄한 신청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칼라양식이 아닌 일반 양식인 경우에는 기계판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서는 정자체(영문이름 작성시 대문자)로 작성하여 기계판독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10년 만기 Rp.605,000, 5년 만기 Rp.517,000(8세 이상-18세 미만), Rp.385,000(8세 미만), 사증추가 Rp.55,000

● 전자여권 발급후 지금 소지하고 있는 구여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 여권안에 발급되어 있는 다른나라의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같이 소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새로 발급된 전자여권의 앞.뒤 표지안에 전자장치가 내장되어 스탬플러 등으로 훼손하시면 여권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전자여권으로서 교체하시기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급하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만일 전자여권 발급 절차가 진행중에 있을 시 국내에 긴급한 사유로 귀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발급해드립니다.

- 단수여권은 국내 도착후 여권의 효력이 상실 되므로 정상적인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다시 다른 곳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을 소지하면 비자 취득 없이 미국 방문 가능한가요?

답) 네, 가능합니다. 단, 90일간이며,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합니다.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결과 11.17일부터 우리국민에 대한 VWP 적용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임 인도네시아에서 감동을 주는 교민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타임 인도네시아 발행호에는 끊이지 않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독도문제와 가난한 현지학교에 많은 후원과 봉사를 하고 있는 교민인 최병우씨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타임 인도네시아에 부편집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성복 씨

교민이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주간지인 Time Indonesia가 11월 첫 발행되었다. 타임 인도네시아에 부편집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대민담당을 맡고 있는 김성복씨.

타임 인도네시아는 인니어 및 영어로 아담 말릭 (인도네시아 초대 기자회견회장역임, 유엔 인도네시아 대표, 외무부장관역임, 제3대 부 대통령 역임) 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다.

타임 인도네시아 발행호에는 끊이지 않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독도문제와 가난한 현지학교에 많은 후원과 봉사를 하고 있는 교민인 최병우씨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김성복씨는 “인도네시아 신문에 한국사람들의 사

건 사고들만 게재되고, 한국인의 좋은 일들은 게재되지 않아, 인니현지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좋지않은 이미지를 갖게됨으로서, 교민 여러분이나 가족들에게 본의 아닌, 현지인 들로부터 부당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며 교민사회의 선행사례들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기 위해 타임 인도네시아 발행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성복씨는 “국제란 및 광고 및 홍보를 통하여 한국의 좋은 이미지 및 교민들이 펼치고 있는 선행사례들 - 불우이웃돕기, 초중고장학금지원, 고아원및양로원 지원봉사, 의료봉사, 등을 홍보하려하기 때문에, 교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원고 모집합니다!

한글, 영문, 인니어 가능하며, 관련 사진 등을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임인도네시아에 게재됩니다.

담당자: 김성복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5028 4996, 526 9614, HP: 0815 1177 1899

이메일: time_indonesia@yahoo.co.id



'9.30사태'의 전말(顛末)

제4부 최후통첩과 패자들의 말로(末路)

글 : 김 문 환

이제 할림지역을 제외한 모든 요충지에서 군사력을 장악한 수하르또 진영은 혁명군에게 10월 1일 저녁 7시까지 투항하라는 최후통첩까지 보냈으나 대통령이 아직 혁명군과 함께 있는 터라 공격을 미루어 오고 있었다. 대통령에게 전령을 보내 곧 할림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이 시작될 터이니 보고르궁으로 피신할 것을 통보한 직후인 저녁 8시 50분, 수하르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9.30운동'은 정부전복 쿠데타이며 그들에 의해 여러 명의 육군 수뇌부 장성들이 납치되었으나 수까르노 대통령과 나수피온 국방부장관은 현재 무사하며 본인이 육군의 지휘권을 잠정적으로 장악하였음을 공표하였다. 이 시각 공군참모총장 오마르 다니 장군은 대통령과 그 일행을 피신시키기 위해 두 대의 수송기와 수하르또 진영을 공격할 무스탕 전투기의 발진을 준비토록 명령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수하르또는 전략사령부 지휘부를 스나얀(Senayan) 체육관으로 긴급히 이전하게 된다. 한편 혁명군 내부에서는 수하르또군의 공격을 앞두고 대통령의 피신처를 놓고 측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오마르 다니 장군과 수빠르조 준장은 대통령이 중부 자바 족자까르파나 마디운(Madiun)으로 피신하기를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저녁 8시경 제2부수상인 레이메나 박사와 경찰사령관 수쥘또(Soetjipto)가 대통령의 침실에 들어가 보고르로 피신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순간, 테위 부인이 들어와 대통령과 포옹을 한 뒤 대통령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단둘이 밀담을 나누는 것이었다. 테위 부인도 보고르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꾸짖하고 있었다. 테위 부인의 의도를 눈치 챈 오마르 다니 장군은

아이덜과 교감한대로 대통령을 중부 자바 마디운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목적이 어디가 되었든 할림지역을 떠나야 하는 시각이 임박해 오고 있었다. 오마르 다니 장군의 강요를 받은 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대통령이 집밖으로 나서는 순간 레이메나 제2부수상이 대통령 부관인 밤방 위조나르꼬(Bambang Widjonarko)가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대통령을 밀어 넣었다. 이 차는 위조나르꼬에 의해 보고르로 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차량이었다. 수하르또 진영은 위조나르꼬에게 절대로 대통령을 오마르 다니 장군이 제공하는 항공기를 타지 말도록 사전에 회유해 놓은 상태였다. 이유는 만약 대통령이 오마르 다니 장군이 제공한 항공기를 타면 필히 족자까르파로 날아갈 것이며 그곳에서 아이덜이 세울 공산당 망명정부의 인질이 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족자까르파 행을 끈질기게 시도하다 주도권을 빼앗긴 오마르 다니 장군이 대통령 일행의 차량에 동승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더 이상 빈 자리가 없다는 구실로 이마저 거절당한 후, 두 대의 차량에 분승한 대통령 일행은 밤 10시 반에 할림을 출발하여 자정이 다 되어 보고르 대통령궁에 도착하였다. 대통령 일행이 출발하기 직전 경호차장인 사엘란(Saelan) 대령은 대통령이 보고르로 가기로 최종 결심을 하였다는 메모지를 수하르또 진영에 전달하도록 전령에게 남기고 출발하였으며 보고르에 도착하자마자 수하르또 장군과 서부 자바 지역사령관(실리왕이 사단)인 이브라힘 아지(Ibrahim Adji) 소장에게 무사히 도착하였음을 전화로 통지하였다.

아이딧은나수띠온, 수하르또연합인소위 'NATO(Nasution + Suharto)'군이 약하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 지역을 피해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지역에 망명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오마르 다니 장군이 제공한 다코타(Dakota) 소형 비행기를 타고 10월 2일 새벽 1시 30분 꾸스노(Kusno), 왈루요(Waluyo) 등 두 명의 비서를 대동하고 족자카르타로 비행한다. 아이딧이 족자카르타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마르 다니 장군도 허큘리스 수송기로 이륙하여 자바 상공을 순회하면서 만약 수하르또군이 할림지역을 공격하면 내전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라는 지시를 지상에 있는 공군본부 상 황실에 하달하면서 무려 6시간 후에야 마디운 공항에 착륙하였다.

대통령 일행이 보고르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수하르또 진영은 10월 2일 새벽 3시 특전사령관인 사르위에디 대령과 '국군의 날' 행사 차출병력인 실리왕이 사단 소속 제328대대와 30대의 장갑차를 수하르또 진영에 합류시킨 사단 참모장 다르소노(Dharsono) 준장에게 할림 소탕작전을 위한 공격명령을 내렸으며 아침 7시에 혁명군 주력부대인 제 454대대가 항복하자 수하르또는 오후 2시부로 쿠데타 진압 작전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자신의 후견인이자 고향 선배인 아니 육군참모총장 등 6명의 장성들이 실종된 데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충격을 받은 사르위에디 대령은 금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공군본부 작전국장인 헤르람방(Sri Mulyono Herlambang) 소장과 함께 헬리콥터에 동승하여 보고르공으로 날아가 수카르노를 직접 면담한다. 우선 대통령에게 할림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제454대대를 중부 자바로 원대 복귀시키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납치된 장성들의 소재에 대해 묻자 대통령은 "혁명완수 과정에서 희생은 당연히 따르게 된다."며 상당히 거칠게 반응하자 사르위에디 대령은 이에 격분하게 된다. 사르위에디 대령이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간 뒤 대통령은 수하르또 장군에게 자신에게 상황보고를 하도록 지시한다. 오후 4시경 육로로 보고르에 도착한 수하르또는 공산당 쿠데타 가담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오마르 다니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건의하자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해 수하르또는 격한 어조로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어찌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자,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네."라는 통명스런 답변만 돌아왔다.

10월 1일 새벽 사복 경찰정보원인 수깃만(Sukitman)은 상상치 않은 이날의 정황을 파악하려고 서성거리다 우익 장성들을 납치한 혁명군에 의해 루방 부야아 지역으로 함께 연행되고 말았다. 오후에 이곳을 가까스로 탈출하여 바이 파스 지역(현 Jalan Gatot Subroto)을 지날 때 이번에는 그의 거

동을 의심한 대통령 경호실 순찰대에 체포되어 다음날 자카르타 지역사령부의 심문을 거쳐 전략사령부에 인계된다. 그의 진술에 의해 실종된 6명의 장성과 한 명의 위관급 장교의 시체가 유기된 개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특전사(RPKAD) 요원들은 그를 대동하여 10월 3일 자정을 넘겨서야 뽀독 그데, 루방 부야아 지역에 있는 지름 75센티 깊이 12미터의 폐기된 우물 속에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형체의 시체들을 찾아 내게 된다. 10월 4일 아침 수하르또 장군, 나수띠온 장군 등 고위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전사 제 1대대장 산또사(C.I. Santosa) 소령의 지휘아래 신평 뽀자이탄(Sintong Pandjaitan) 소대원들과 해병대 잠수부들에 의해 시체 인양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밤 8시 수하르또 장군은 전국 라디오 방송망을 통해 공산당과 공군이 개입된 쿠데타의 진상과 그들의 잔혹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5일 '국군의 날' 행사는 취소되고 대신 이들 7명의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이 자카르타 깔리바따(Kalibata) 국립묘지에서 거행되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자신을 대리하여 수반드리오 제1부수상을 이날 장례식에 파견하였으나 육군 측의 거부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같은 날 공산당 정치국 명의로 "공산당은 9.30운동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금번 사태는 육군 내부의 알력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책임회피성 성명서를 내보내고 있었다. 10월 6일 대통령은 보고르 대통령궁에 연금된 상태로 각료회의를 소집하였으나 부상 당한 나수띠온 국방장관과 중부 자바로 피신 중인 아이딧은 불참하였다. 10월 10일 자로 국가안보질서회 북사령부(Kopkamtib)가 출범하여 수하르또 소장이 사령관에 취임하였고 거사 당일 수카르노에 의해 임명된 프라노또(Pranoto) 육군참모총장 대행은 해임되었으며 10월 16일 부로 수하르또 소장이 한 계급 진급함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을 겸임한다. 이후 특전사, 전략사령부, 실리왕이 사단 등이 주축이 되어 사건 관련자 체포는 물론 공산당을 발본색원하는 정풍운동이 1966년까지 자바, 발리 섬 전체와 수마트라 일부 지역을 광풍처럼 휩쓸게 된다. 특히 공산당과 상극관계로까지 치달았던 회교계는 그들의 최대 단체인 NU(Nahdlatul Ulama)가 선봉에 나서 공산당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행하게 된다. NU의 청년무장단체인 반세르(Banser)는 그 첨병이 되어 미 정보기관인 CIA가 넘겨주는 자료를 근거로 적색분자의 자택을 도면상에 붉은 색으로 표시하면 행동대원들이 습격하여 무자비하게 집단학살을 감행하였고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은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이 발포하였다. 이 정풍운동의 주 타겟은 골수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공산당 동조자로 판단되는 예비역 육군, 해군 군인, 농부, 교사 등 그 범위가 실로 광범위하였다. 이 당시 희생된 주민 수는 적게는 3십만 명에서 백만 명이라는 숫자까지 거론되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초래하여 그 후손들



뽕독 그대 지역 내에 있는 루방 부아야에 보존되고 있는 9.30사태 당시 납치 살해된 6명의 장성들과 1명의 장교를 고문하는 장면(일말 모형)과 그들을 매장하였던 지름 75센티, 깊이 12미터의 우물 현장.

은 현재까지도 그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9.30쿠데타가 일일 천하로 막을 내린 후 최고위직 배후인 물이었던 아이딧(D.N.Aidit) 공산당(PKI) 당수는 1965년 11월 22일 새벽 1시 반 중부 자바 보요랄리(Boyolali)읍 삼봉 그대(Sambung Gede) 마을에서 전락사령부 소속 제328대대에 의해 체포되어 근처에 있는 한 우물가로 끌려가 30분간의 마지막 발언기회를 부여 받았다. 아이딧이 열정적인 사자후를 토해내며 공산당을 찬양하자 흥분한 군인들이 그대로 사살해 버렸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그를 감금한 처소를 아예 폭파시켜 통째로 날려보냈다는 설도 있다. 어찌됐던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틀림없으며 현재까지도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 소재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산당 제2인자였던 루끄만(Lukman)과 제3인자였던 뇨또(Njoto), 정치국원이었던 수디스만(Sudisman)은 1965년 10월 초 체포되어 재판 없이 처형되었고 선무공작 실행부서인 특별국(Biro Khusus)의 제1인자 샴 까마루스만(Sjam Kamaruzman), 제2인자 뽀노 마르디요노(Pono Mardijono), 제3인자 왈류요(Waluyo)는 1965년 12월 서부 자바에서 체포되어 1968년 사형선고를 받은 뒤 처형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2중 첩자였다

는 의혹이 짙은 삼은 ‘내부자 고발’을 해주는 대가로 구명 받아 석방된 후 신분을 변경하였다는 설도 있다.

대통령 경호대대장의 신분으로 혁명위원회 최고회의위원장을 맡은 운똥(Untung bin Samsuri) 중령은 1966년 3월 서부자바 짜마히(Cimahi)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1926년 중부자바 솔로(Solo)부근 꺼부멘(Kebumen)에서 바딕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42년 3월 일본군이 진주하자 군속(兵補:Heiho)으로 입대하였으나 종전 후 국민방위대(TKR)에 몸을 담다가 1948년 9월 터진 마디운 공산당 봉기 때 반군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다. 1962년 8월 서부 이리안 해방 작전 당시 제454대대장으로 소롱(Sorong) 지역에 낙하하였던 운똥 소령은 불과 11일 만에 정전(停戰)이 되어 스마랑 본대로 귀임하여 근무하던 중 경호대대장이 되어 달라는 수까르노 대통령의 부름을 거부한 베니 무르다니(Benny Moerdani) 소령 대신에 수하르토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 경호대대장으로 취임하는 행운을 누렸으나, 결국 이로 인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만다. 한편 운똥 대대 휘하의 제3중대장으로 10월1일 새벽 7명의 장성 체포 특공대를 지휘한 둘 아립(Dul Arief) 중위는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일단의 부하들을 이끌고 중부 자바 스마랑을 향하여 도보로 탈출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중간 지점인 쨌레본(Cirebon) 시내로 들어가 헌병대에 들러 식량을 구걸하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호실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자카르따로 압송되어 살렘바(Salemba) 형무소에 수감된다. 자카르따 지역사령부 제1여단장 신분이며 쿠데타군 집행위원으로 거사6시간 전까지 수하르토를 회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던 압둘 라띠업(Abdul Latief) 대령은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 1982년 무기로 감형되었다가 1998년 12월 하비비 정부에 의해 사면되었으며 자카르따 지역사령부 부사령관이면서 대 말레이시아 전선인 서부 깔리만탄 지구 전투사령관으로 파견 나가 있으면서 거사 이틀 전에 부대를 이탈하여 혁명군에 합류한 수빠르조(Supardjo) 준장은 사형선고 후 처형되었다. 수까르노와 아이딧에 대한 신봉자로서 쿠데타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육군과 정면 대립하였던 오마르 다니(Omar Dani) 공군참모총장은 1966년 사형선고를 받고 30년간 복역 후 1995년 8월 16일 독립기념일 특사로 석방되었으며, 경호실장(TjakraBirawa)으로서 대통령과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사부르(Sabur) 준장도 실형을 선고 받고 4년간 복역 중 옥사하고 말았다. 쿠데타군 전위병으로 이용되었던 민병대를 훈련시켰던 할람공항 수비대장 수요노(Sujono) 공군 소령은 1966년 6월 3일 사형을 선고 받고 곧 처형되었다.

한편 정부요인 중 대통령 다음의 권력서열 2위였던 수반 드리오(Subandrio) 제1부수상 겸 외무장관 겸 중앙정보부장(Badan Pusat Intelijen)은 사형선고 후 무기형으로 감형되어

수하르토 진영이 혁명군을 제압하는데 일등공신이었던 특전사령관 사르위 에디 위보워 장군(당시 대령, 예비역 명예 대장) 부부의 말년의 모습. 손자들을 군대식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무골 집안의 기풍을 연상하게 된다. 실제로 그의 둘째(에르윈 수조노, 현역 중장, 국군관리국장), 셋째(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예비역 명예 대장, 현 대통령), 넷째(하디 우또모, 예비역 대령, 현 국민당 당수) 사위는 모두 무인(武人)의 길을 걸었으며 그의 장남인 뿌라노모 에디 소장은 현직 특전사령관이다.



복역 중 독립기념일 특사로 1995년 8월 16일 석방되었고 하에를 살레(Chaerul Saleh) 제3부수상은 수감생활 중 옥사하였으며 주로 수카르노와 중국간 교량역할을 담당하였던 우이 쭈 댓(Oei Tjoe Tat) 무임소 장관은 1966년 3월 12일 체포되었으나 1976년에야 12년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 1977년 석방되었다. 이와 같이 거사에 직접 가담한 그들의 대부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평생을 감옥 속에서 보내야 했으며 공산당 숙청운동 당시 낙인 찍힌 주민들은 그 후손들까지도 평생 동안 질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운의 삶을 살아야 했다.

9.30사태 직후 사권관련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이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사건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들어나자 수하르토 정부는 1967년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였으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중국과의 교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한 정부는 군부의 반대를 겨우 무마하여 1990년 8월 중국과 국교를 재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산당 주도로 자행된 쿠데타가 일일천하로 막을 내리고 역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수하르토 진영은 1967년 3월 수카르노 대통령마저 완전히 권좌에서 몰아내고 명실공히 '신질서(Orde Baru)' 정부라는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다. 이 신정권의 요직은 당연히 역쿠데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들에게 돌아갔으나 이들 중 일부는 수하르토 정권이 장기집권의 의도를 드러내자 이에 반발하여 이탈하기도 하였다.

당시 자카르타 지역사령관으로 사태발발 당일 새벽

부터 수하르토 진영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던 우마르 위라 하디꾸스마(Umar Wirahadikusuma) 소장은 대장으로 예편한 후 회계감사원장(BPK)을 거쳐 1983년 부통령 직위에까지 입신하였으나 당시 수도권에 남아있던 유일한 병력이며 최정예 부대장인 특전사령관으로서 10월 1일 오후부터 수하르토 진영에 동조하여 쿠데타군을 소탕하는데 일등공신이었던 사르위 에디 위보워(Sarwo Edhi Wibowo) 대령은 북부 수마트라 지역사령관, 이리안 자야 지역사령관, 국군사관학교장, 주 한국대사, 외무부 감사총국장(Inspektur Jenderal), 뽀짜실라 이념연구원장(BP7)을 거치면서 중장으로 예편하여 1987년에는 국회(DPR)로 진출하였다. 1983년 대선 당시엔 그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국군총사령관인 유습(M. Jusuf) 대장, 회계감사원장인 우마르 대장과 함께 강력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끝내 수하르토의 낙점을 받지 못하고 우마르 대장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사르위 에디 장군이야말로 수하르토 정권탄생의 최고 수훈자였지만 그를 평생 라이벌로 경계하였던 수하르토는 1989년 11월 사르위 에디 장군이 운명하자 그 다음해인 1990년 그를 명예 대장으로 추서하여 그의 공적을 사후에야 인정한 셈이다. 사르위 에디 장군은 주 한국대사를 역임한 인연으로 태권도 협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혁명군이 제거대상 제1호로 설정하였던 나수피온(A.H.Nasution)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납치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점은 쿠데타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 버렸다. 당시 현역 군 장성 중 최고 원로이며 군의 대부인 나수피온 장군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아 수하르토 진영과 연합하여 군 명령체계를 재가동시켜 쿠데타군을 고립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1958년 국군정화운동 당시 칼자루를 쥐고 있던 나수피온 육군 참모총장의 강경조치로 인해 수하르토가 예편위기에 몰린 악연

은 수하르토 집권 기간 내내 나수피온이 등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견제를 받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수카르노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수하르토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추대한 1967년 3월 MPR 특별총회에서 의사봉을 잡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그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았다.

사르위 에디 특전사령관과 더불어 당시 실리왕이 사단 참모장으로서 예하 제328대대를 동원하여 쿠데타군 소탕작전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다르소노(Dharsono) 준장은 직후 실리왕이 사단장으로 승진하여 초기에는 승승장구하였으나 그 후 수하르토 측근들의 견제를 받아 중장으로 예편하여 아세안(ASEAN) 사무총장이라는 한직을 맡아 권력의 핵에서 멀어지게 된다. 1980년에는 자카르타 도지사를 11년간이나 역임한 알리 사디킨(Ali Sadikin) 해병중장과 함께 '50인 청원그룹(Petisi 50)'을 결성하여 가장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가 되어 4년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사태 당시 전략사령부 참모장이던 께말 이드리스(Kemal Idris) 준장은 초기에는 전략사령관으로 승진하였으나 다르소노 장군과 마찬가지로 중장으로 예편하며 주 유고슬라비아 대사로 좌천되면서 반정부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께말 이드리스 준장과 함께 전략사령부 참모이면서 전략사령관인 수하르토 장군과 특전사령관인 사르위 에디 대령의 연락책을 맡았던 와호노(Wahono) 대령은 중장으로 예편하여 주 버마대사, 동부자바 주지사를 거쳐 국회(MPR&DPR) 의장까지 역임하면서 끝까지 수하르토를 보필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중부자바 지역사령관, 이리안 자야 병합작전(만달라 작전) 당시 줄곧 정보참모로서 수하르토를 보필하였던 알리 무르토포(Ali Moertopo) 대령은 사태 당시 혁명군의 지휘관들을 설득하여 우군으로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하르토 정권 출범 초기 수조노 후마르다니(Soedjono Hoemardani) 장군과 함께 수하르토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1974년 1월 15일 권력투쟁의 산물로 끓아터진 '말라리 사건(Malari)' 당시 대통령 정부보좌관직(ASPRD)을 사직하며 한동안 근신하였으나 그 후 정보부(BAKIN) 차장, 공보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베니 무르다니 장군을 오른팔로 삼아 탄탄한 군맥을 구축하였으나 1988년 요절하는 통에 알리 무르토포의 군 인맥은 고스란히 베니 무르다니 장군에게 승계되게 된다.

당시 퇴역군인 담당 장관(Menteri Veteran)으로써 혁명군을 회유하였던 바수키 라흐만(Basuki Rachman) 소장은 1966년 3월 11일 수카르노 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수빠서마르(Supersemar)' 명령서를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단명하여 큰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혁명군을 회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던 소비린 목파르(Sobirin Mochtar) 준장도 이리안 자야 지역사령관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1964년 특전사 내의 항명사건으로 좌천된 베니 무르다니 소령 후임으로 특전사 제1대대장 직을 인계 받은 산토사(C.I.Santosa) 소령은 9.30사태가 터지자 사르위 에디 사령관의 선임 대대장으로 혁명군을 제압하기 위한 할림 공격작전의 선봉에 섰고 실종된 7명의 장성, 장교들을 찾아내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해 연말까지 지속된 공산당 숙청작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전사 중대장으로서 10월 1일 오후 쿠데타군이 점령하고 있던 국영라디오 방송국 건물을 탈환하는데 일선 중대장이었던 화이잘 탄중(Faisal Tanjung) 중위는 대장 계급에까지 오르면서 수하르토 정권 말기 국군총사령관, 정치안보 조정장관으로 크게 입신하였으나 화이잘 탄중 중대 예하 일선 지휘관이었던 신통 뽀자이탄(Sintong Panjaitan) 소위는 중령 때인 1984년 회고 극단분자들에 의해 자행된 태국 돈무앙 공항 가루다 항공기 구출작전 당시 특공대장으로 인질범들을 전원 사살하며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한 신화를 세우면서 특전사령관을 거쳐 분쟁지역인 동띠모르 관할 지역사령관으로 재직 중 산타 크루즈(Santa Cruz) 공동묘지 학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어 미래의 참모총장 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쉬움을 남기도 하였다.

※사족(蛇足); 지난 4회 동안 연재한 '9.30사태의 전말' 시리즈는 수하르토 집권기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기 힘들었던 금기시된 내용들이다. 쿠데타 계획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애매한 행동을 취했던 수하르토 본인의 태도와 공산당을 발본색원한다는 명목으로 5십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희생되었을까 하는 의혹 등으로 인해 수하르토 집권 기간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진실을 발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다.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당사자와 증인들은 30년 이상 진실이 왜곡되어짐을 알고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 터부를 깨는 경우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 투옥, 심지어 살해의 위협까지도 감수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러한 족쇄에서 풀려나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며 지금이 민감한 주제를 마감하고 있는 필자의 감회는 남다른 면이 있음을 숨길 수 없다.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마두라 섬 사람들

모래와 끼이지 않는 불

나에게 있어 멀리 새로운 곳 오지로 떠나는 일은 아이가 최신형 로봇을 사러 Mall 가는 날처럼 즐거운 일이다. 아이가 신형 로봇을 조립 할 때의 열심을 쏟아 붓고 나도 현장에 있을 때가 더 힘이 솟고 열정적긴 하지만 어찌 순조롭기만 할까?

그러나 조립이나 촬영이나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을 때 느끼는 그 행복함은 한마디로 무지개를 미끄럼틀로 타는 기분이다.

마두라 섬에는 아직 공항이 없다. 수라바야에서 항상 배를 이용해야 하므로 시간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현재 방갈란에서 수라바야 간의 2km의 수라마두교(Jembatan Suramadu) 공사 중이고 2009년 초에 완공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배를 타고 가면서 허리가 연결되지 않은 수라마두교를 볼 수 있었다.



배 안에서 선장에게 “언제쯤이면 저 다리가 완공이 되겠어요?”

선장은 나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밖으로 쭈욱 내밀고 팔을 뻗어 가리키며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아직 덜 된 부분만 빼고…….”

“네 다 되었어요?”

“네, 덜 된 부분만 빼고 다 되었어요…….”

그의 재치 있는 대답에 한참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나는 자와 사람들과의 선입견을 벗어나서 마두라 사람들과는 웬지 친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한마디 내던졌다.

“그럼 지금 우리는 마두라 섬에 도착한 셈이네요. 여기서 저기 섬까지 바다만 없다면…….”

마두라 섬에는 4개 군이다. 그 중에서 남쪽 끝에 위치한 수머넵(Sumenep)으로 가려고 한다. 그곳에 가면 조상 대대로 모래와 더불어 사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

말랑에서 차타고 배타고 또 차타고 바땅바땅(Dusun Tenggara, Desa Dapinda,

Kecamatan Batang-batang) 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총 8시간이었다. 그 곳의 전경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자연 그대로의 멋이 살아 있었다.

오래 전부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쌓인 모래들이 만리장성처럼 준비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그걸 그들은 ‘모래산’이라고 말했다. 모래산에는 풀들이 나 있었고 붉은 흙들과 흰 돌들이 언덕처럼 산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다.

솔직히 말해 마두라 사람들이 난폭(Keras)하다는 말을 자와 사람들에게 하도 많이 들어 긴장을 풀지 않았다.

낮선 곳으로 무작정 가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 안내 해 줄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사람을 찾았더니 마침 빠머까산 군내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연결 되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차 안에서 그 교장 선생님은 내일 전 교직원 회의가 있는데 한국 손님이 와서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쁘니 회의를 글피로 미루자고 하셨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 그 분에게는 너무 고맙았다.

마을로 들어섰다. 집집마다 마당 한 모퉁이에 모래밭이 만들어져 있었고 골목길도 전부가 모래였다.

밟으면 서걱 서걱거리는 모래가 아니라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의 감촉이 살며시 와 닿는 부드러운 모래. 게다가 빛깔도 누르스름했다.

초라한 집 담벼락을 끼고 도는데 명석도 안 깔린 마당에 채로 뭔가를 걸러내는 할머니와 손자가 보였다. 어릴 적에 할머니가 뭔가를 채로 걸러던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 보았다. 할머니는 손자와 놀아주면서 마당에 있는 모래의 찌꺼기들을 채로 걸러내는 일을 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놀면서 틈틈이 걸레로 방 닦는다는 생각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모래 마을에 도착하면서부터 나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 할머니가 채로 걸리는 모래가 너무 곱고 부드러워 바람에 날려가는 걸 쳐다보다가 뜨거운 햇살에 아지랑이가 아롱거리자 이젠 정신이 몽롱하기까지 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나에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노랗게 염색한 여자와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리저리 찍어대자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더 신기한 존재였는지 우리 뒤를 우르르 몰려 다녔다.

모래는 마당, 부엌, 심지어 안방까지 놓여 있었다. 거실이 사방으로 트여진 부자 집으로 들어갔다. 매트리스 침대 옆에 모래 침대를 놓아 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 아주머니의 말에 의

하면 모래는 조상대대로부터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었으며 자신은 출산을 모래위에서 셋이나 하였는데 산모에게나 아기에겐 아무런 탈 없었다고 말했다. 내가 질문을 했다.

“아기의 땀줄이나 온 몸에 모래가 묻잖아요?”

“모래를 이불로 생각하면 되고 손으로 이렇게 툭툭 털면 다 없어지는데 뭘...??”

내가 주부이다가 보니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나는 방송 일을 하면서 뻔히 아는 것도 질문을 할 때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실험하는 습관이 생겼다. 너무 다른 문화 차이에 혹여 내가 잘못하여 시청자들이 잘못된 문화를 기억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실험도구를 사용한다. 그날도 마시라고 준 컵의 물을 모래 위에 부으면서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으로 퍼 담아 밖에 버리면 되지요.”

똥똥한 몸으로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귀찮을 것 같은데 삽으로 흙을 뜨듯이 두 손으로 젖은 모래를 담아 밖으로 들고 나가는 아주머니의 엉덩이가 참 예뻐 보였다.

나의 이런 모습이 이제 취재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취재당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외국인인 처음 본다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신기했을까?

아무래도 괜찮다. 그들의 삶을 나는 파고들어야 하니까, 한아



마을의 간이 식당 / 모래위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

이가 칭얼거리자 내가 가방에서 사탕 한 개를 꺼내 주었다. 녀석은 내가 이상한지 가만히 쳐다보더니 얼굴을 엄마에게 과묵 으면서 아까보다 더 때를 쓰자 젊은 엄마는 아이의 등에다가 모래를 쓱쓱 문질러 주었다.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금방 사르르 잠이 들었다.

어느 마당에 할아버지는 신경통에 좋다며 모래를 무릎에 끼 었었고, 알레르기에 좋다며 팔 다리에 가지고 가서 문질렀다. 서늘한 오후만 되면 사람들은 마실 다니는 것처럼 어느 한 집에 모여 모래 마당에서 텅굴고 있었다. 행사도 모래 위에서 하였다. 그들에게 이건 더 이상 모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도 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신식으로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 마당에는 조상대대로의 무덤이 있었고 그 옆에서 나무를 빨감으로 양은술에 밥을 짓고 있었다.

허접한 호텔에서 주는 아침은 빵 반조각과 홍차 한잔이라서 먹지 않았고 근처에는 점심 먹을 곳이라고 없어 보인다. 배고플 때밥 짓는 연기를 보면 더 허기가 지는 것은 왜일까?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파란 바다가 보인다. 바닷가 그 마을에는 더운 바람이 불어 왔다.

태양을 머리에 이고 발길을 옮기는데 목과 등줄기에서는 땀들이 스멀스멀 기어 내려가고 있다. 모래. 부드러운 모래. 이젠 허기가 지자 입자가 부드럽고 색깔까지 같은 모래가 미숫가루로 보인다. 저 시원한 바닷물에 한 그릇 타 후루룩 마셨으면 갈증이 좀 없어지련만.....

마을의 구멍가게에 들러 시원한 음료를 주문했는데 주인은 망치로 포대기를 톡 치더니 주먹 만 하게 깨어진 얼음 두 덩어리를 들고 와서 이가 빠진 컵에다 넣고 사이다를 따라 부어 주었다. 뜨끈뜨끈한 사이가 톡 쏘면서 목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나는 잠시 여유를 가졌다.

마을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께 우리가 누구냐며 말은 알아듣느냐고 마두라 사투리로 물어 보는 것 같다. 한 사람은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그러자 한 남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말을 건네려고 내게로 오고 있었다. 나는 모르는 척하고 일어섰다.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밤새 연습한 말, 고맙다는 말을 “사갈랑콩/ Sakallangkong” 이라고 했더니 마두라 말을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바땅바땅에서 맞이하던 노을은 그야말로 황금빛이었다.

빠머까산에는(Larangan Tokol, Kecamatan Tlanakan) 꺼지지 않는 불/(API TAK KUNJUNG PADAM)이라는 곳이 있다.

다음 날 빠마까산(Pamekasan)으로 이동 하였다. 그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Api Kunjung Tak Prenah Padam)이 있다. 그 불의 전설은 이렇다. 젊은 청년이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나무를 주워서 불을 피우려고 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자꾸 도망을 가니 못 가도록 땅을 파고 넣어 두려고 땅을 팠더니 불이 솟아 나왔다고 한다. 그 때부터 불꽃이 피어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했다.



내가 도착한 오후에 하필인지, 덕분인지 소나기가 심하게 내렸다. 우기철의 소나기는 정말 양동이로 갖다 붓듯이 내리자 씨름판만한 곳에 여기저기 피어 있던 불꽃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런데 물이 얇게 고인 곳에서 뽀글뽀글 수포가 피어 올랐다. 그곳을 막대기로 파 보라고 청년에게 시켰다. 그리고 성냥불을 던지니 불꽃이 확 피어올랐다.

내 실험 방법이었지만 나름대로 검증하고 나서 그들의 전설을 떠 올렸다. 그들은 그 불꽃을 ‘지옥의 불’이라고도 하며 그 이유는 지옥에 가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지 않을까, 라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며 늘 다짐한다고 교장선생님답게 말씀 해 주셨다.

불꽃이 피는 땅 속에는 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여기든 저기든 땅을 파면 파는 대로 가스가 피어올랐다. 그 곳은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었고 주위의 상인들은 아침마다 그 불에 밥을 짓고 커피를 끓여 팔고 있었다. 환한 대낮에 활활 타오르는 화력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이 나는 아깝기만 했다.

밤이 되면 저 불꽃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고 고구마와 옥수수 한 포대기를 샀다. 마침 놀러 온 청년들을 모아 캬바이어를 하고 또 옥수수와 고구마를 마음대로 구워 먹으라고 했다. 기왕이면 손뼉도 치고 노래도 부르자며. 여러 군데의 불꽃과 청년들의 노래 열창 그리고 상인들의 도움으로 그날 밤은 푸짐하게 보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면서 오토바이 소리도 사라져 갔다.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던 마두라 청년들, 사실 촬영

잘 할 수 있어 오히려 고마운 건 나인데, 누가 마두라 사람들을 Keras 라고 하였던가, 묻고 싶다.

Pamekasan 있는 호텔은 그래도 좋았다. 야자수가 그늘진 호텔 창문을 내다보며 나를 생각해 보았다. 하늘에는 별과달이 즐고 있으니 방안에도 있는 별과달도 줄음이 퍼져 오는 것 같다.

글, 사진 : 김성월

2003년 월간문학21 수필로 등단 해 미래문학회원, 의성문인협회원으로 현재 수라바야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말랑'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닉네임은 이름을 딴 별과달.

hansol0508@hanmail.net

화폭속에 담아낸 12인의 열정

- 한인미술협회 제9회 정기전 개최



100여명의 교민 참석으로 북적거린 남부자카르타의 한 전시장엔 1년간 정성으로 화폭에 갖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 12인의 한인미술협회(미협) 회원들이 정기전이 있었다.

올해로 벌써 9회 정기전을 맞게된 미협 회원들은 내용의 다양함과 보다 성숙해진 작품세계로 교민들에게 다가갈 깊이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지난 11월 14일 시작한 미협정기전엔 평소 문화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김호영 대사와 손인식 서예가 등 많은 애호가들이 자리해 깊이 있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미협 회원들과의 작품세계에 대한 진지한 자리가 연출되었다.

인치혁 미협회장은 “교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미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작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9년여간 쉽없이 정진해온 미협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자녀 교육 (하)

JIKS 김일영 국장

자녀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을 만들자.

교육은 목표가 있다. 교육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커리큘럼(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커리큘럼은 1주일에 각 과목을 몇 시간씩 공부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각각의 교육목표를 현실화하고 체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 교육목표가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라고 하면 이를 체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운동해야 한다',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고 말만 해서 자녀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5차원 전면교육'을 저술한 원동연 박사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5차원 전면교육을 요약하면 인간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능력'의 5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교육하여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5가지 요소 중 한가지가 부족하여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하는 '약점 위주의 전략'과 함께 전반적으로 여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체력이 약하면 아무리 지력과 심력이 높아도 학습의 효과가 체력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체력을 보완하는데 더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에 앞서 효과적인 좋은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5차원 전면교육'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공부는 실력양성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의 하나이다. 다만 각각의 공부에는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과 학습원리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과 더불어 내 자녀만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철학, 자녀의 현실을 아는 것, 적합한 커리큘럼을 자녀에게 적용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실천과 훈련을 통한 습관화의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압력 밑줄에 좋은 쌀을 넣고 생수를 부어 아무리 기다려도 밥이 되지는 않는다. 적절한 시간 동안 불로 끓이는 과정이 없으면 맛있고 영양이 있는 밥이 되지 않는다. 불은 실천과 훈련의 과정으로 변화를 의미하고 고통, 고생, 어려움 때로는 부족한 상황(결핍)을 동반한다. 그다음으로는 뜬을 들일 때 불을 약하게 하고 적절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밥이 잘 되는 것처럼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커리큘럼, 뛰어난 재능,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훈련을 거친 습관화 과정이 없으면 속빈 강정이다. 음악에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은 실력 양성 뿐만 아니라 인격 양성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예절, 타인 배려, 도덕 교육도 습관을 통한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다. 공부도 습관이 중요한 데 특히 스스로 하는 공부의 습관이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시간은 학습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최고의 학습전략 플래닝'의 저자는 목표 세우기 -> 전략 수립 -> 시간 관리 -> 실행 -> 피드백의 플래닝 학습원리 5 단계를 설명하면서 공부 잘 하는 첫째 비결을 습관으로 꼽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실컷 놀아야 한다고 하나 방과 이후 충분히 놀게 하면서도 가능한 한 1~2 시간씩은 공부하고 책을 읽는 습관을 키워 줘야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유대인을 꼽는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유명 대학 교수의 약 20%가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뛰어난 것을 두뇌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육방법 때문이라고 말한다. 학자들은 유대인 교육의 힘을 탈무드 교육, 가정 교육을 통한 신앙과 지혜의 교육과 더불어 수난의 역사교육에서 찾는다. 그러한 이치에서 우리의 자녀도 신앙과 지혜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종교교육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이는 물질세계만을 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알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훨씬 지혜로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공부에 있어서도 자기의 정신세계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성취능력이 남 다를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의 학생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한국에서 새로 오신



특별기고

선생님들은 자카르타의 학생들이 한국에 비해 착하고 순진하다고 한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인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이곳 자카르타의 여러 환경의 차이가 원인일 수 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노출의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고 깊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자녀교육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한다.

인도네시아의 교육환경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 부정적인 면으로 첫 번째는 무더운 기후와 변화가 없는 계절이다. 자연의 원리상 더운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이 응집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집집마다 식모, 기사에 의존함으로써 독립심과 생활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기부여가 어렵고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전반의 부정부패 관행과 대중 넘어가는 사회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녀의 옳고 그름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한국에 비하면 학습환경이 열악하고 좋은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접할 수 없다는 것 등의 여러 문제가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우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사람과 문화는 물론이요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문화 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인종과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타 문화를 하나의 귀한 문화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봉사활동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고아원도 많고 돌아보면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다. 가족여행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대화의 싹을 키워나간다면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부정적인 면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카르타에서 자란 여학생은 후일 결혼할 때에 며느리 감으로 낙제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물론 자카르타에서 성장한 훌륭한 며느리 감도 많겠지만 이러한 우스개 소리가 회자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안다. 고교생 딸이 있는 어떤 아버지는 식모가 있어도 자기 방 청소와 빨래는 딸 스스로 하도록 시켰다고 한다. 지금은 군소리 없이 잘 하는 데 그렇게 되기 까지 무려 2년을 씨름했다고 너털웃음을 짓는다. 빨래하고 청소한다고 자립심이 대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환경이 부정적이라면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아무리 기후가 더워도, 식모가 있거나 없거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고 부정부패가 심해도, 또 학습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는 자녀에게 특히 필요한 교육 요소

우리 자녀의 교육목표는 인격과 실력(문제해결능력) 양성이다. 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특히 필요한 교육요소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꿈, 비전, 미션(사명)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꿈’이라고 하면 ‘비전’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꼭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학습전략 플래닝’의 저자는 ‘비전’ 중에서도 ‘타인 중심의 비전’을 따로 미션(사명)이라고 하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미션’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게 됨은 물론이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분들을 보면 인니어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공부만 한다. 언어가 그렇고 공부가 그렇고 인생이 그렇다. 자녀에게 ‘공부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비전’과 어떤 ‘미션’을 설정할 것인지를 인생의 멘토로서 의논하고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2) 봉사활동

대학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봉사활동을 우선적으로 본다. 자발적으로 특히 주도적으로 한 봉사활동인 경우 더 큰 가치를 둔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봉사 활동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과정하면서도 공부에 밀려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여러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참가하도록 하고 더불어 자녀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인생의 귀한 가치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독서, 체험 활동

독서를 간접경험이라고 하고 체험, 여행 활동을 직접경험이라고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 따만미니에 있는 십여 개의 주제별(예를 들면 곤충, 새, 물고기, 에너지, 지구 등) 박물관, 자카르타의 여러 민속 박물관, 각 나라의 문화원, 공연, 서점, 화산, 농장 등 가볼 곳이 많다. 독서는 인도네시아의 우리 자녀에게 특히 중요한 교육요소이다. 유아시기는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 주고 커가면서부터는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4) 국어 공부

국어 공부의 목적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분석력과 판단력을 키우고 주요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또한 국어 공부를 통하여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 지도력, 대인관계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 인니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으면 인도네시아인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면 외국인과 마음을 터 놓는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어를 못하면 같은 한국사람인데도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이방인과 같이 모든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멀어지게 된다. 적어도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한국어 과정으로 한국어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자기관리, 목표관리

자기관리 능력은 자신의 능력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이며 시간관리, 재정관리, 언어관리, 태도관리가 포함된다.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아가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1일, 주간, 월간 계획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함께 계획하고 커가면서부터는 자녀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유도를 한다. 사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학생은 드물다.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습관이다.

6) 습관 형성

‘최고의 학습전략 플래닝’의 저자는 동기부여가 크고 똑똑한 A양과 의욕도 없고 지능도 약간 낮았던 B양의 성격이 일정 기간 지난 후에도 서로 비슷했다는 데서 의문을 갖고 알아본 결과 어머니가 B양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공부습관을 익히도록 한 것을 발견하였다.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놀기, 저녁 먹기 전에 간단히 운동하기, 식사 후 30분간 복습하기, 잠 자기 전 30분 간 독서하기 등의 규칙적인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독서이다. 특히 어머니가 유아 시기부터 책을 읽어주면 커서도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한다. 그 밖에 1 주일에 2~3 번 일기쓰기, 수학의 기초 연습, 운동, 예절,

정리정돈 등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녀의 좋은 습관들을 찾아 보고 정말 습관이 되도록 붙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7) 문제해결능력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공부는 왜 하는가? 단체활동과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지성교육, 감성교육, 창조성교육, 리더십교육은 왜 하는가? 나름대로 각각의 교육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데 한 편으로는 문제해결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문제가 잘 해결되면 기쁨이요 행복이고 잘 안되면 고난이요 고생이다.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녀가 뭔가 문제에 봉착



해 있다면 해결책을 바로 가르쳐 주거나 대신 해결해주는 것보다 자녀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게 할 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생긴다. 과외학습도 잠시 잘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면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학습도 자율학습이 습관이 되도록 하여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생각은 참으로 자녀교육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순종적이면서 스스로 인생을 준비하여 자기의 인생을 훌륭하게 개척해 나가는 자녀를 둔 자카르타의 부모들을 보면 부럽기만 하다. 하지만 그러한 자녀도 문제가 왜 없었겠는가! 하물며 보통의 자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고 커가면서 문제도 함께 커간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극복하기만 하면 그만큼 미래의 가능성이 클 수 있기에 믿고 기다려 주었으면 한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느끼는 점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한다.

자녀교육은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고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자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씩씩하는 것은 어머니가 한다. 아버지는 세상의 창이라고 한다.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회를 배운다. 사실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시간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길게 보고 조언을 해 줄 사람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더 적합할 것이다. 어느 아버지는 고교생 아들에게 3년간 꾸준히, 특히 방황하고 있을 때면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버지가 자식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든든한 것은 없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이든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교육학자는 우려를 한다. 칭찬이 좋은 것이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꾸짖기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격려와 훈계가 적절해야 한다. 꾸짖는 것이 부모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되어서 안 되고 옳고 그른 것을 알려 주어 그른 것을 고쳐 나가도록 사랑을 담은 적절한 훈계가 필요하다. 예절, 품성, 도덕, 인격과 관련된 자녀의 행동에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핑계, 거짓말, 무례(無禮), 폭력은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더라도 자녀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녀의 미래를 깊이 생각하고 인격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녀교육은 부모가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무언(無言)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일 때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격언에 이러한 것이 있다. “Anak-anak lebih memperhatikan apa yang orang tua lakukan daripada apa yang orang tua katakan.” 자녀는 부모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살펴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는 자녀에게 특히 아쉬운 점은 자생력이다. 앞으로 어떠한 나라에 살더라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적응하며 깨끗하게 자기의 인생을 뿌리 내리는 생활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의 교육환경은 자생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최악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작게는 자기 방 청소, 자기 옷 빨래, 정리정돈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 봉사활동과 종교활동은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건이 되면 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와 유럽의 배낭여행을 자녀와 함께 계획해 보자. 부모 또는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일터가 있다면 중고생 자녀를 방학 중에 인턴사원으로 일하게 하는 것도 좋은 커리큘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는 고민과 함께 성장하는 데 막상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은 드물다. 몸이 아프면 공부를 잘 할 수 없고 심신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듯이 고민이 크고 깊어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에게 좋은 의사가 중요한 것처럼 자녀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자카르타의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는 선배도 훌륭한 멘토가 된다. 학교에는 담임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있고 상담선생님도 있다. 각각의 종교단체에도 정신적인 스승과 선생님이 있다. 고민사회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전문가와 리더가 있다. 이러한 분들을 찾아서 자녀의 멘토로 모실 때 자녀에게는 귀한 인생의 조언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멘토가 있다. 바로 부모님이다. 부모는 첫 번째 멘토이며 최후의 멘토라고 생각한다.

<참고도서, 기사>

1.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 원동연, 2000년, 김영사
2. 호크마 전뇌교육, 김정희, 2003년, 호크마교육원
3. 학교를 넘어선 학교, 엘리엇 레빈, 2004년, 민들레
4. 최고의 학습전략 플래닝, 고봉익, 2006년, 씨앗을 뿌리는 사람
5.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쓴소리, 문용린, 2006년, 갤러온
6. 교사역할훈련 가이드, 토마스 고든, 2008년, GTI코리아
7.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 황경애, 2008.9.8, 조선일보



계약법(5)

(Hukum Perikatan)

(전호에서 계속)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16.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계약을 구두로 하던지 서면으로 하던지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의 적법 조건인, i)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ii)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 보유, iii) 계약 목적물의 존재, iv) 계약의 내용이 법규 혹은 사회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으면 적법하다. 그러나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며 특정 계약은 특정한 조건과 특정 양식을 갖춰야 적법하게 되며, 구두 계약을 한 경우에 한 측 당사자가 계약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계약 내용의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면으로 법정 조건을 갖추어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차에 바람직하다.

17. 사용 언어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한부 고용계약서 등 특정한 언어 사용을 관계 법규로 정하고 있는 특정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일반 계약서는 사용 언어에 관한 제한이 없으나 법정에 제출하는 소장, 변론서 및 서류 증거물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인도네시아어, 즉, 이중 언어로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한인과 한인 간의 계약은 한글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고, 한인과 인도네시아인 간에 계약은 양측이 이해하는 언어와 인도네시아어 작성함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아울러서 양본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언어본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외국어 본이 우선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본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후에 다시 인도네시아어 본과 비교를 해야 함으로 인도네시아어를 이해하는 당사자는 인도네시아어본을 정본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년 전에 한국계 외자투자 회사의 주주간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 시 번역사가 한글로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 일부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면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번역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했다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나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나 분쟁발생 시 증빙하는 측면에서나 계약서를 한 언어

로만 체결하는 것 보다는 한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예”를 들면 한글 혹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즉,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계약서의 구성 요소

계약서를 형식으로 분리하면 크게 계약서의 명칭, 개문, 계약 당사자, 전문, 본문, 종결문,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계약서의 명칭

계약 내용에 맞게 명칭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주식 매매 증서 혹은 매매 약정서, 공장, 사무실, 아파트 혹은 자동차 임대차 증서 혹은 약정서, 건물시공 계약서, 기계설치 계약서, 전기시설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Distributor 계약서, Franchise 계약서 등 구체적인 명칭을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번졌을 경우에 계약서 제목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 증서와 매매 약정서는 다르다. 매매 증서로 하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자에게서 매입자로 넘어가나 매매약정서는 이러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매매를 하겠다고 약정하는 계약이다.

20. 개문

“본 약정서/계약서는 무슨 요일 몇 년 몇월 며칠 누구와 누구 간에 어디서 체결한다” 는 식으로 작성한다, 체결일자는 마지막 부분에 계약 당사자의 성명/상호 위쪽에 기재할 수도 있다.

21. 계약 당사자

21.1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상호, 법인이 어느 나라 법에 의하여 설립됐는지와,

법인의 법적 주소를 기재한다. 중요한 계약서에는 설립 정관 번호 및 설립 일자와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회사 설립 승인서까지 기재한다. 계약 당사자를 법인의 대표 이름, 즉,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직업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회사가 아니고 사장 개인의 계약서가 되버린다. 회사의 일을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계약 당사자를 개인으로 하고 별도 조항에 회사의 계약이나 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아 우선 개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계약서의 당사자가 회사로 바뀌며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서 회사로 넘어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지 법규상으로 권리와 의무 승계가 가능한 계약이 있고 승계가 불가능한 계약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혹은 감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상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을 요구하여 정관상으로 대표자가 임의로 주주총회 혹은 감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서에 서명할 자의 대표권 유무를 확인한다.

21.2.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주소, 직업 및 국적을 기재한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약이 있다.

21.3. 계약서에 서명자가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 당사자인 위임자의 성명, 주소, 직업 및 위임 일자를 밝히고, 위임장 원본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위임자/계약당사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외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이중 언어로 작성하고 위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공증을 받는다. 법원에 제출하는 위임장은 위임자/계약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등록이 필요하다.

21.4. 계약서에 서명자가 재 대리인/재 피위임자인 경우

재 대리인/재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재 위임장의 일자 및 상기 “다”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상기 “21.4.”항과 같은 요령으로 준비하고 원 위임장 원본과 재 위임장 원본을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22. 전문

전문에는 계약의 배경 및 필요성을 기재하고, 이에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전문이 없이 계약 본문으로 바로 시작된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번지면, 계약의 배경과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해야했던 필요성이 기재된 전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 계약 파기 조건에

해당되며 내용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25. 본문

모든 계약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한 계약 당사자가 의무 사항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상대 계약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손해 보상 혹은 벌칙 조항을 규정한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 본문의 내용이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25.1. 계약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기재한다.

25.2. 계약 목적물

계약의 목적물이 유형물이면 호칭,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소재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상태 등을 기재하고 무형물인 경우에는 호칭 및 무형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기재하여 무형물이 되도록 자세하게 묘사한다.

25.3. 계약 당사자의 의무

통상 개문에 먼저 호칭되는 계약 당사자의 의무 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상대 상대방의 의무 사항을 기재한다. 의무 사항은 금액, 물량, 시한,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의무 사항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위약 여부 결정이 어려워지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될 수 있다.

25.4. 계약 당사자의 권리

계약에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무슨 권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5.5. 거래 가격 및 지불 조건

되도록 자세하게 기재한다. 자세히 적으면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진다.

25.6. 권리 이동 시점

계약서를 체결하면 계약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언제 상대 당사자에게 넘어가는지 시기를 명기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에 권리 이동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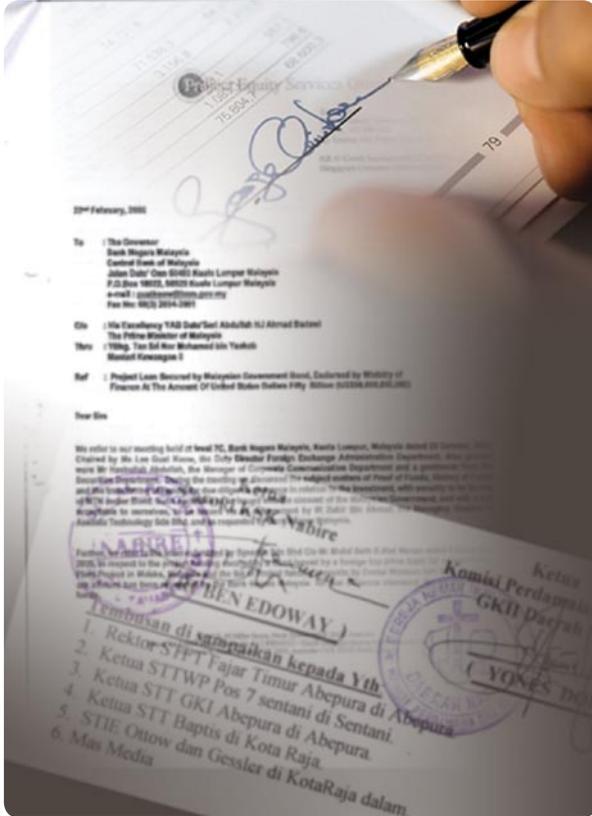
25.7. 해약 조건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다는 해약 조건을 기재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약이 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약 조건을 기재한다.

25.8. 위약 해당 조건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위약에 해당된다거나 계약서의 한 조항 한 항만 지키지 않아도 막바로 위약으로 간주되다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일정 경고 기간을 준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에 해당된다든지 등 어떠한 경우에 위약에 해당된다고

위약 조건을 기재한다.



25.9. 벌칙/손해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상대 당사자에게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배상해야 한다고 기재한다. 일반인들이 체결하는 계약서는 대부분의 계약서에 벌칙/손해 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손해 액수 계산과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게 된다.

법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정신적인 피해,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거물로 입증해야 하며, 이자 청구도 민법에는 년 3%로 되어 있으나 세법에 규정된 월 2%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계산은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감정만 건드리는 결과로 가게 된다. 계약서에 벌칙/손해 배상 내역을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25.10. 불가항력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쑤나미 등 천재지변 과 법규 혹은 정부의 정책 변경, 전쟁, 전쟁 등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불가항력 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으로 보지 못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재한다.

25.11. 적용 법률

민사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합의하면, 그 나라 법 이외의 다른 나라 법은 적용이 불가하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합의하면, 그 계약에는 한국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법을 적용해야 함이 계약법의 원칙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네시아법을 적용시킨다고 기재함이 무난하다.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법을 적용시키다고 기재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여 인도네시아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인도네시아 법정에는 한국법 전문가가 없으므로 재판을 하려면 한국법 전문가를 한국에서 초청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25.12. 분쟁 해결 관할권

계약서에 분쟁 해결 관할권을 기재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분쟁 해결 관할권이 어디에 있다고 기재하면 기재된 기관 이외에서 재판은 불가하다.

“예” 를 들면 분쟁 해결 관할권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에 있다고 기재하면,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 이외의 어느 기관이나 법원도 관할권이 없으며, 반드시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에만 소송을 청구해야한다. 계약에 인도네시아 법을 적용시키기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분쟁 해결 관할권을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에 있다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ANI에는 사회 지도자급의 전문직 중재위원들이 공식 중재비만 받고 분쟁 중재비 납부일로 부터 최장 180(백팔십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 주며, BANI의 판결문은 뉴욕 협약에 가입한 전 회원 국가(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및 일본 등 세계 125여 국가)에서 해당 국가 현지 법원의 집행허가를 받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26. 종결문

종결문에는 상기와 같이 계약을 했다는 내용과, 계약서 원본을 몇 부 작성해서 누가 보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처음 부분인 개문에 계약 체결 일자리를 기재하지 않고 종결문에 기재할 수도 있다.

27. 서명

계약 당사자들의 성명, 명칭, 직위를 기재하고 정부 수입인지를 부치고 서명을 한다. 서명의 일부는 수입인지에 걸치게 하고 일부는 수입인지 밖에 걸치게 한다. 이 때 수입인지가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증인 2명을 세워 증인은 계약 당사자가 서명한 아래 부위에 서명하도록 한다.

중요한 계약서는 서명 후에 공증인 사무실에 등록을 하거나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공증 계약서로 체결함이 바람직하다.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자료 제공 : 글 번역 / 작가 허영순
OKTN (KBS WORLD INDONESIA)

말(언어)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감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행복하게도 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타향에 오래 있다 보면 한국 말이 그리워 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족 자카르타 거주 시 “인도네시아어 공부하러 왔으니 목적을 달성해야 해” 하며 처음 한두 달은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째 인도네시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정말 한국어가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어로 수다도 떨고 싶고……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 또는 농담을 친구들과 속 시원히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재미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도 한두 단어 이상의 문장으로 길게 설명해야 하고, 의사 소통까지는 되지만 언어를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또 번역된 자막을 보고 “배우가 하는 말의 뉘앙스를,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 알아 들을 수 있을까? 웃음이 나와야 하는 장면에서 같이 웃고 슬픈 장면에서 모국어를 듣는 우리와 같은 의미 전달을 받을까” 고민해 봅니다.



내 사랑 금지옥엽 Permata Hatiku.

인호가 아이가 아파 방송 핑크 낸 전설에게 앞뒤 전후 가리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아파 방송 핑크 낸 사실을 안 인호 전설에게 사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Maafkan aku

미안해요/나를 용서하세요

Aku memang mudah meledak.

원래 잘 옥 해요.





위 인도네시아 문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쉽게 폭발해요” 인호는 자신의 성격을 “잘 옥해요” 라고 말 합니다. “옥 하다”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 입니다. 쉽게 화를 내를 사람 또는 감정을 이야기 합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내요 보다 내가 잘 옥해요 라는 말은 좀더 강한 뉘앙스 느껴집니다.

Mudah marah “쉽게 화를” 내다 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화를 낼 때 또는 참았던 분노가 터질 때 인도네시아어로 폭발(Meledak) 하다 (쉽게 화를 내다)라는 표현을 사용 합니다.

*Meledak 의 사전적 뜻은 폭발하다. 터지다.(전쟁등이)발발 하다 입니다.



신호를 찾아 섬 마을에서 온 보리를 촌담 (촌스러운 시골처녀)라고 별명을 붙여 부릅니다.

Oh, gadis **dusun** itu? Bagaimana kelanjutannya?

아 그 촌담? 어떻게 됐니?

위 인니어 문장을 직역 하면 그 촌녀(시골녀) 어떻게 됐니? 촌을 이르는 인도네시아 말은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Kampung**과 **Desa** 입니다. 그 외에도 **Dusun** 있습니다. 촌, 시골 마을을 표현 하지만 **Kampung**은 마을 또는 주민들이 사는 작은 도시를 말합니다. 외곽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Kampung halaman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Desa =마을, 촌락

Dusun 한적한 곳에 동떨어져 위치한 완전한 시골 입니다.

촌스런 사람을 지칭할 때 오랑 캄뵙 (**Orang kampung**)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이 어수룩한 사람, 시골에서 막 상경한 것 같은 세련됨 없는 촌 사람을 지칭할 때 오랑 두순 (**Orang dusu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너는 내 운명
Kaulah takdirku



새벽이 디자인이 런칭 전 경쟁사에 유출 되었습니다. 강 회장과 면담장면에서 새벽은 본인의 누명을 벗고 싶다고 말하며 본인의 포부에 대해 말합니다.



Mendesain dapur adalah cita-citaku sejak lama.

주방 가구 디자인은 오랜 제 꿈입니다.

꿈 **Mimpi**, Cita-cita (**Impian**), **ilusi**

문장에 따라 꿈은 꿈 **Mimpi** (Dream) 잠을 자면서 보는 어떠한 것, 바라는 것

이상 Cita-cita/impian (Vision)이 되고자 하는 이상. 허상 **ilusi** (illusio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 이가 말하는 꿈은 이상 중에서도 Cita-cita (Vision)으로 그 동안 염원해 오던, 이루어 지기 바라던 목표입니다. (어떠한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상을 이야기 합니다.)

같은 이상이라는 뜻의 **Impian**은 이상이긴 하지만 눈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형용사 적인 이상을 말합니다.

예) **Impianku adalah menjadi orang besar**

내 꿈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포부 또는 목적(눈에 보이는)을 이야기 할 때 **Mimpiku**(**Impianku**) 보다 **Cita-citaku** 로 표현해 보세요.

* 여러분의 꿈(이상, 목표)은 무엇입니까?

Apa **cita-cita** Anda sekalian ?

길게 설명 하지 않고 간략한 단어로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돈 독이 오르다. 돈 찾는데 혈안이 되어 분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돈 밖에 모르는 사람 돈을 최 우선시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Mata (눈) duitan (바하사 브 따위(자카르타)어로 돈을 이야기 하며, 바하사 인도네시아로는 Uang), Mata duitan (돈을 찾는 눈)이라고 합니다.

태영이 할머니인 풍금 할머니가 산들 바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자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영 엄마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Kenapa tiba-tiba dia jadi **mata duitan** seperti itu? 왜 갑자기 돈 독이 올라서 그래?.



유사 하지만 다른 쓰임새.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문장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Menuduh / Menyalahkan/ Mencurigai / Memojokkan

비난하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 비난 하는 표현들을 문장 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Menuduh / Menyalahkan

(어근 Tuduh, Salah 비난(고소), 잘못)

비난하다. ~의 탓으로 돌리다.

* **Menuduh** 는 고소하다 의 뜻으로도 사용 됩니다.

예) Jangan **menuduh** orang lain kalau tidak ada buktinya.

증거가 없다면 타인을 비난 하지 말라.

Kau sedang menuduh aku?

내 탓 이라는 거야? (너 지금 날 비난 하는 거야?)

어떠한 물증이 없이 짐작만으로 비난 할 때, 남의 탓으로 돌릴 때 사용됩니다.

Walaupun usahamu tak berhasil jangan

menyalahkan orang lain

당신 사업이 실패 하더라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 **상대방을 면전에 두고 또는 밖으로 드러나게 비난 하는 경우**

Mencurigai (Curiga)

의심하다. 수상히 여기다.

Jika **mencurigai** orang lain sebelum ada bukti itu sebuah kesalahan.

증거 없이 타인을 의심(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Dia **mencurigai** aku walaupun belum ada bukti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심한다.

* 비난 하지만 마음 속으로 비난 할 경우, 겉으로 표
 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Memojokkan (어근 pojok 모서리, 귀퉁이)

Dia selalu memojokkan orang lain walaupun
 belum ada bukti kesalahannya,

그는 증거가 없을 지라도 항상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 넣는다 (잘못이 없음에도 잘못을 시인 하도록
 만든다)

Guncang / Heran / Kejut / Kaget / Agung / Takjup / Kagum

놀라다

사전적 의미로 놀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 입니다. 하
 지만 짐작하지 못 한 일이 벌어져 놀랄 때, 아름다운 것
 을 보고 놀랐을 때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 뒤
 에서 당신의 어깨를 툭툭 건드려서 놀랄 때 놀람의 표현
 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uncang

(어근 Guncang, 사전적 의미: 심하게 흔들리다)
 충격을 받다 (쇼크)

예) Dia **terguncang** setelah mendengar berita
 kematian teman akrabnya.

그는 친구의 부고를 듣고 충격(놀랐다)을 받았다.

Heran

어떠한 것을 보거나 듣고 놀라는 (이상하거나 일반적이
 지 않거나 짐작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 했을 때)

예) Aku **heran** dengan gaji sekecil itu ,dia masih
 bisa tinggal di Kota besar .

그 적은 월급을 갖고 대 도시 에서 살수 있음에 놀랐다.

Aku **heran** bagaimana dia bisa belajar di Korea.
 어떻게 그가 한국에서 공부 할 수 있는지 놀랐다

Kaget / Kejut

놀라다 라는 뜻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보았거나, 무
 섭거나 두려운 감정의 놀람.

예) Aku **kaget** pintunya tiba-tiba tertutup .

(갑자기 벌어진 일이나 소리 등에 놀람, 심장이 떨림)

그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니 놀랐다.

Banyak orang **kejut** setelah melihat anak
 jatuh dari gedung tinggi.

(어떠한 일(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놀람)

아이가 고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
 이 놀랐다.

Agung > Takjup > Kagum

경이로운, 신성한/감탄, 탄복/ 칭찬하는, 높이는

Agung 은 신이니 아주 경이로운 것을 보고 놀랐을 때,
 Takjup 은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을 때, Kagum은 사람
 이나 사물을 보고 놀라움을 표현 할 때 사용 됩니다.

예) Tuhan yang maha **agung**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Wisatawan asing **takjum** akan keindahan alam
 Korea.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놀랐다
 (감탄, 탄복했다)

Dengan rasa **kagum** dia memandang lukisan itu .

그는 놀라움에 가득 차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 **짱**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8



김남규 편집위원
(코린도 그룹 이사)

필자가 직접 작성해서 매달 게재하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시청한 수백 편의 영화와 미국 드라마(Prison Break, 24, CSI 등), CNN뉴스, 인터뷰, ESPN, Star Sports 의 스포츠 중계, 각종 영어 신문, 잡지, 전문지, 외국인과 주고 받은 이메일, 영문편지,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 입니다. 올해 6월에 시작해서 벌써 12월, 7회 째 입니다

7. 직장/발표/회의 영어

- 6) 본인의 경력에 대해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난 마케팅 전문가 입니다/마케팅 업무에 30년 종사했습니다.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about my background/I am a marketing guy/I have been working for marketing for 30 years
- 7) 요즘 우리가 매일 얘기하고 듣는 것은 원유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What we are talking and hearing these days is that oil price keeps going up
- 8)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의 85퍼센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Top 10 companies account for 85% of market share
(㉞ account for (행위·의무 따위에) 책임을 지다, (한 몸·에, 손·에) 떠맡다(for), 5 players accounts for 80% of the output 5개 회사가(공장이) 전체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9) 향후 5년간 중국의연평균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은 8퍼센트를 예측하고 있다
We forecast that the average annual growth of China in the next 5 years will be around 8%
(㉞ average annual growth 연 평균 성장(형용사 순서 주의)

- 10)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저의 결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Before I finish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summarize my conclusion

8. 출장/여행

- 6) 일상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로 놀러 왔어
I came over here to escape from burden of daily life
(㉞ burdensome 짐스러운, 부담스러운
- 7) 가봤고 해봤어
Been there, done that! =Been there, done it!
(㉞ 회화체로서 이미 경험이 충분히 있어 별로 흥미 없음을 표현할 때 씀
- 8) 플라잉 맘 서비스
Flying mom service
(㉞ 소아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는 순간부터 도착지에서 다른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서 도와주는 것임
- 9) 문제는 이번 주 내내 그가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서 붙잡고 얘기하기가 힘들어
The problem is that he is on holiday in the USA all this week and it is very difficult to get hold of him
(㉞ get hold of 이야기 상대자로 ~을 붙잡다;
- 10)한국에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히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 enough is being done to promote tourism in South Korea
(㉞ enough 충분한 양, 많음(명사)

9. 무역/경제/재정/금융 영어

- 6) 공장 재고 상태는 어떤지?/선적을 서두르거나 늦출 필

요가 있는지?

What is the inventory status at the factory? Do you need us to speed up or slow down our shipments?

(㉠) speed up 서두르다, slow down 늦추다

(주2) step on it! (회화체) 자동차에 액셀을 밟아. 속력을 내

7) 주식이 오로지 싸다고 해서 도로 사지 마

Don't buy back shares just because they are cheap

(㉠) Buy back 도로 사다

8) 결과는 대부분의 분석가의 예상을 견실히 능가하였다

The result solidly topped most of analysts forecast

(㉠) top 뛰어넘다, 능가하다, 넘다, 초과하다

9) 경제붕괴(2008년 9월의)는 지나친 자만심에 따른 인과 응보이다

Financial disintegration in September 2008 is the nemesis after the hubris

(㉠) disintegration 분열, 붕괴, nemesis (그리스신화) 인과 응보, 보복의 여신, hubris 지나친 자만

10) 사이드 카

side car

(㉠)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관리제도로, 지수선물가격이 전일 증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5분 동안 효력 정지된다. 한편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만 정지되는 데 반해 주식거래 중단 (circuit breaker)은 일반 매매 전체의 효력이 정지됨

(㉠)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환차손을 보상 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손실을 입게 돼 있는 구조로 설계된 환 edge 상품: KIKO:(Knock-in Knock-out)

10. 정치/사회 영어

6) 그 것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I cannot comment on that /What else can I say (about it)?

(㉠) No comment! 할 말 없어

7) 대통령은 대중에 의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The President did not feel pressured by the public

8) 우리가 그 일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없이는 그런 일은 안 벌어 질 것이다

It cannot happen with a significant reason for us to make it happen

(㉠) compel 강제하다, 억지로 시키다, happen (발생하다),

make it happen (성사시키다) happen 이란 단어를 두 번 사용한 점이 특이함

9) 지난 2주에 걸쳐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의 경질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Over the past two weeks, rumors have been rife that president had requested the replacement of Army Chief Staff (㉠) rife 소문이 무성한, ripe 과일이 익은

10) 미국과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토의할 건에 대해 확실한 논제를 가져야 한다

People might think that there will be some kind of political bargaining between US. So, we should have a clear agenda on what to discuss

(㉠) bargaining 거래, 교섭; 계약, bargain 싸게 산 물건, 떨이 a bargain sale 특매, 특가, agenda 안건, 의제

11. 패션/쇼핑

6)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곳에서는 이 것을 살 수 없다 (이 곳에서 사는 게 좋겠다)

You cannot buy this one at reasonable price elsewhere

(㉠) elsewhere 다른 곳에서 (부사)

7) 예뻐지려는 노력을 난 해야만 해 왜냐하면 외모가 이쪽 업계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야

I have to make an effort to be beautiful because appearance really counts in this world

(㉠) make an effort 노력하다, count 중요성을 지니다, 가치가 있다

8) 나이는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야 난

I am not the kind of person who is afraid of aging

(㉠)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

9) 얼굴이 축 처지고 있는 것 같아/성형수술을 받을 까봐

I feel like my face is sagging/I think I need plastic surgery

(㉠) sag 처지다, 축 늘어지다, plastic surgery 성형수술

10) 물건은 사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을 난 좋아 해/만든 사람들의 창의성을 보는 게 좋거든/패션을 보는 것은 내게 있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아

I like window-shopping/I just like to look at their creativity/I think looking at fashion is the same for me as looking at paintings

(㉠) window-shopping 상점에서 물건만 구경하고 사지 않는 것. Browse (살 생각도 없으면서 상품을) 이것저것 구경하다 (하고 다님), blouse 여자용 블라우스

12. 의학/건강

6) 발이 저려 따끔따끔해

I have pins and needles in my legs

(㉠) pins and needles 손발이 저려 따끔따끔한 느낌, sore 육신 육신[따끔따끔] 찌시는

7) 의사가 나의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을 날려버리래

Doctor wants me to eliminate the sources of stress in my life?

(㉠) source 근원, 근본, 원천, 원인

8) 재활, 복원

Rehabilitation=Rehab

9) 태아의 성별 확인 테스트

Sex-determination test

(㉠) 제왕 절개술 Caesarean operation

10) 애완동물을 키우면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아

Pets are great stress reliever

(㉠) pin reliever 진통제

a Happy and Prosperous New Year

(그룹 임직원 모두는 귀하와 가족 그리고 팀원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valuable support in 2008 and wish you and a Wonderful year 2009 ahead

(2008년의 귀중한 후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9년이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Our entire organization joins in sending Holiday Greetings with every good wish for the Mew Year

(그룹 전체 임직원이 연말에 인사를 드리며 새해 모든 행운을 위해 기원합니다)

2009년 1월호에는 13)영화에 자주 나오는 법/경찰/액션

14)이메일/영문편지 15)연예계/Media 16)축구

17)기타 운동 18)미국영어/영국

영어 19)틀린 발음 영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새해에도

택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짱” 니콜라스 올림



특집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에 쓰는 영어

인쇄되어있는 카드나 연하장에 이름과 사인만 하는 것 보다는 영문으로 몇 줄 적어 보내야 할 때 필요한 예문들입니다

In reminiscence of going 2008 and at the thresh of hopeful 2009, we wish to extend hearty thanks and a happy new year

(저물어 가는 2008년을 기억하며, 2009년의 문턱에서 마음으로 부터 감사를 드리며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It is a real pleasure at this holiday time to say” Thank you” as we wish you a full year of happiness and success

(새해 내내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From all of us, we wish you, your family and your team



교육훈련의 중요성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기업이든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다만 투자 대비 성과가 가시적으로 바로 들어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하에서는 특히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볼 때 교육훈련과 같이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투자부분에 대해 소홀 할 수 만은 없다고 생각된다. 역설적이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지출을 아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어려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볼 때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부분 역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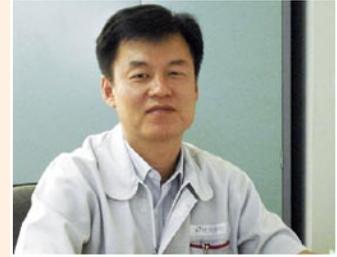
각 회사별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해서는 회사가 목표로 하는 사원의 Quality(업무능력, 태도, 지식 등)를 정하고 현재의 사원 수준을 파악한 후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차이(Gap)을 분석한 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확정하여 Manpower Quality 개선 Master Plan 수립한 후 세부적으로 교육훈련 Program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래 설명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일정하다고 볼 때 궁극적으로 회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훈련의 전반적 사항을 살펴보고 과연 어떻게 각각의 회사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훈련의 의의:

기업내 교육훈련은 경영관리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써 기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의 업무처리능력을 개발하는데 직접적인 목적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기업 내에 있어서 종업원의 자질을 개발하고 직무에 대한 적응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직무를 위한, 보다 나은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적,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이며 욕구(needs) 접근에의 한 방법이다.

현재의 회계법에 의하면, 종업원을 비용으로서 표시하고 있으나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종업원이야말로 우리 기업의 최대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고 육성하는 쪽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데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와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이비스(K. Davis)는 경영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경영의 成果 = 인간의 成果 X 物的要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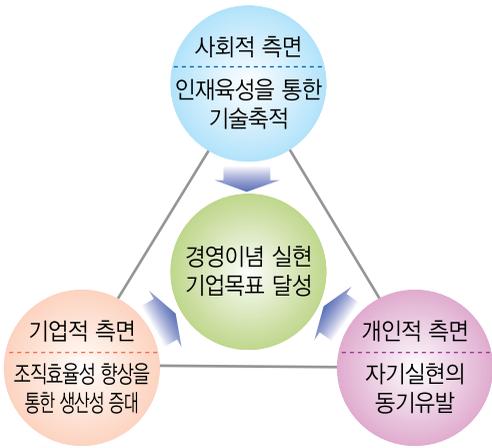
- 1) 지식(Knowledge) X 기술(Skill) = 능력(Ability)
- 2) 상황(Situation) X 태도(Attitude) = 동기유발(Motivation)
- 3) 능력(Ability) X 동기유발(Motivation) = 인간성과(Human Performance)

여기서 물적 요소는 인간성고에 비하여 일정하다고 보면 결국 인간의 성과 여하가 경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인인이 된다. 따라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기업 내 교육훈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 자료: "인사관리" 198쪽(博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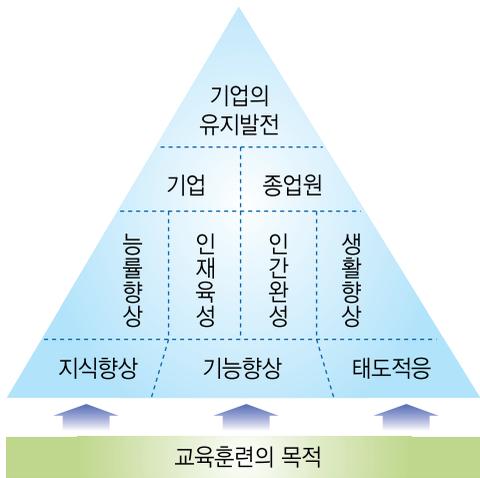
2. 교육훈련의 기본개념:

기업경영활동에서 인재육성이란 경영이념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 그 자체의 동태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동적 개념이다. 교육훈련의 실질적인 요구는 사회적 측면, 기업적 측면, 개인적 측면의 세 방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바이 3개 측면의 요구가 상호 연관을 가지고 균형 있게 충족될 때 비로소 인재육성의 노력은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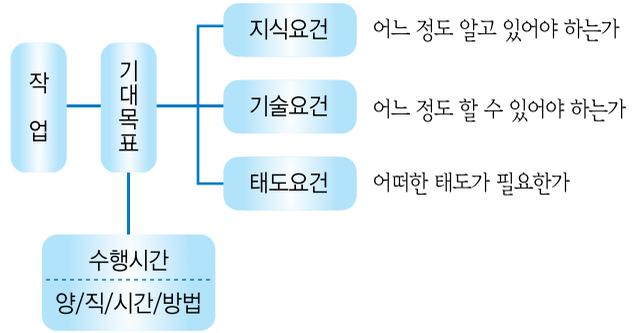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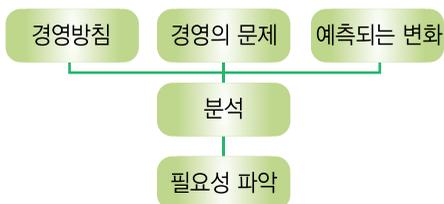
자료 : 한국능률협회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종업원 관리과정”

3. 교육훈련의 목적



종업원 교육훈련의 목적은 종업원의 지식, 기능, 태도를 향상 발전시키어 그 조직체를 강화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 직무에 만족을 주며 직무수행력을 향상 시키어 그들로 하여금 보다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 발전을 가능케 한다.

4. 교육훈련의 필요성



5. 교육훈련의 체계

(1) 계층별 교육 훈련

- 1) 신입사원 교육훈련:
- 2) 중견사원 교육훈련
- 3) 작업자 교육훈련

작업층의 전문적 능력 향상의 초점은 기능의 함양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유능한 종업원, 즉 기능인력 숙련자를 확보하는 것은 유능한 관리자 내지 감독자 확보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4) 감독층 교육훈련

관리층과 작업층을 연결해 주는, 즉 의사결정의 직능과 실천능력을 연결해주는 일선감독자의 주요 역할로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관리직능과 작업직능의 결합, 둘째, 부하의 교육훈련 및 통솔 전자는 관리층의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실행시켜주는 역할로서 경영의 계획 및 실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 후자는 부하(작업층)에 대한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또 통솔하는 역할이다.

(2) 직능별 교육 훈련

- 1) 생산기술 부문
- 2) 판매/마케팅 부문의 교육훈련
- 3) 재무/회계 부문의 교육훈련
- 4) 인사/노무 부문의 교육훈련

6. 교육훈련의 평가

(1) 평가 대상

회사에서 개발하고 실시한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계획 -> 실시 -> 평가의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 진다. 평가의 대상은 크게 교육 실적에 대한 평가와 교육훈련 담당자의 평가로 나뉘어 진다.

(2) 평가 방법

교육실적 평가에 있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1) 1단계 반응 : 참가자가 그의 교육훈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2) 2단계 학습 : 어떠한 원칙, 사실, 기술을 배웠는가?
- 3) 3단계 행동 :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수행상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 4) 4단계 결과 : 교육훈련을 통하여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증대 등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7.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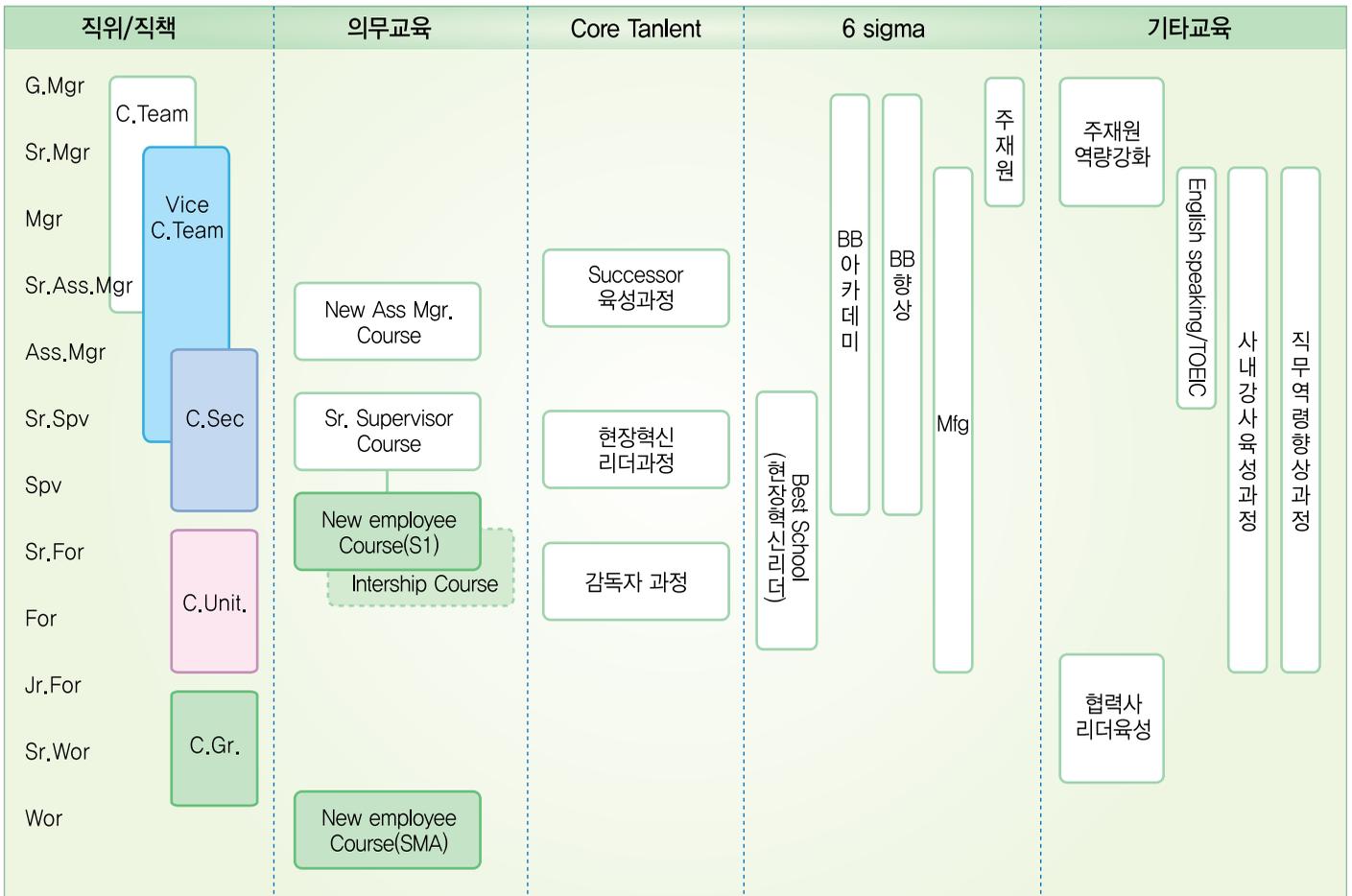
교육훈련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한 후 각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장 작업자의 태도 개선이 목적이라면 회사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태도 부분을 정리하여 매일 아침 조회시 각 하부 조직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문제 부분을 체크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품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소

한 품질 문제사례를 정리하여 어떻게 작업하는 것이 맞는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사진 등으로 정리하여 작업자들을 교육한다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원들의 능력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품질 개선을 위한 다른 아이디어로는 성과가 탁월한 동종 업체를 Benchmarking하여 우수실천사례(Best Practice)등을 정리하여 사원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좋은 자극제가 되어 사원들 스스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 역시 정답은 없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Top의 의지와 아이디어, 각 개별 회사에 맞는 개선노력 등이 실현됐을 때 비로소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원들의 Performance 역시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과정 체계도 예시: 유침 자료

교육과정 체계도(L社)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를 바꾼다



이미 전 세계가 교토의정서 그리고 발리 글로벌 위임을 시작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변화라는 단어가 실감날 정도로 전 세계는 기후변화시대의 기업경영의 새로운 나침반을 돌리고 있다.

오늘날의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 등 지구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물 부족, 식량부족, 환경난민 발생 등 국가간의 분쟁으로 까지 작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기후변화가 단순한 생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국제협상 그리고 세계갈등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원에너지라는 부문으로 전세계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장원을 탐내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의 부국으로 인도네시아 풍부한 산림 자원과 에너지 자원 그리고 에너지 대체 산업의 팜오일, 야자유, 카사바, 자트로파, 옥수수 그리고 새로운 자원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넓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곡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막 환경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 내의 쓰레기 폐기물 관련 법령 규정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 300여 군데의 지방 도시, 군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 전국 약 26개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더 이상 쓰레기 폐기물을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환경부내의 쓰레기 법령 규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 비즈니스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의 자연환경 지리적 조건의 조림사업 및 저탄소화 실현을 위한 제품의 기여도로 인

해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에 대한 대응과 기술제품 그리고 저탄소 사회지향제품 현식 전략 등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한다. 탄소 배출권 유통과 시장의 탄생 그리고 탄소펀드와 기후 비즈니스 등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CDM사업 투자 등의 새로운 투자 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시장, 기후 비즈니스 그리고 CDM사업의 현황과 전망, 기상산업의 변화 전망, 도시와 교통 부문의 변화 전망 등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직 환경 비즈니스 부문의 낙후된 성격을 보이고 있으나, 초기 쓰레기 매립장 관련 Sanitary Landfill 사업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탄소배출권 비즈니스의 CDM 사업 프로젝트, 기초 자연 인프라시설 프로젝트를 통한 조림사업 및 친환경 자연적인 사업의 적재 조건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연자원의 산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자원 에너지 부분의 친환경적인 사업 비즈니스의 석유, 가스대체 에너지의 바이오 에너지 부분의 바이오 디젤과 에탄올을 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자연산업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있다.

자원 에너지 부문외에 곡류산업의 영농산업에 이르기 까지 아주 폭넓게 인도네시아 친환경 에너지 자원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시대에 제일 먼저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르고 있는 바라는 바로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5,120킬로미터의 동서 길이와 960킬로미터의 남북길이의 장대한 국토를 지닌 섬나라 대국 인도네시아이다.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 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기

● 인니정부, 금융위기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임을 경고

Sri Mulyani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니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가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임을 경고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정부예산안을 작성할 것과 국가 지출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동 장관은 금융위기가 국가의 재정, 국민들의 심리, 환율과 이자율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시중은행들의 고객에 대한 신용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동 장관은 예금보증공사(LPS)의 Century은행 구제와 관련하여, Century은행이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

고 있었고 사업과 경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더 큰 위험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인니, 2009년에 추가적인 외채 필요

재무부 Anggito 금융정책총국장은 2009년 내수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추가적인 외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총국장은 내년에 사용될 외채가 대략 50억불 규모로, 국제금융기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차용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총국장은 금융위기 시에 노동집약 산업에서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문제로 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외채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무부 장관, 루피아는 현재 새로운 평형점을 찾고 있다고 언급

11.24 자카르타에서 열린 Investor Summit and Capital Market Expo 2008에 참석한 Sri Mulyani 경제조정부 장관 겸 재무부 장관은 현재 루피아가 새로운 평형점을 찾고 있으며 포럼에 참석한 외환 시장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다면 더 빨리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장관은 최근 달러당 12,000루피아를 넘어선 환율로 인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국제유가인하 등의 이슈로 인해 국내 시장의 인플레이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동 장관은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고 말하고, 10조루피아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인니정부, 해고 막기위해 민간기업 지원할 것임을 시사

Sri Mulyani 경제조정부 장관 겸 재무부 장관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장관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확한 시장 상황분석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장관은 향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개입은 해고를 막기 위한 보조금의 지급이나 인센티브 지급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인니 경총(APINDO), 지나친 임금인상으로 인한 피해 경고

인니 경총 메단지부는 메단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로 거의 모든 기업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만일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된다면, 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인니 경총 메단지부는 2009년 메단시의 최저임금이 올해 918,000루피아 보다 10% 정도 인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 루피아 환율, 높은 달러 수율로 저조세

시장의 전반적인 달러 매수로 인해 11.20(목)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12,000루피아를 넘어섰다.

금융전문가인 PT. Finance Corpindo의 Edwin 사장은 루피아가 시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달러 수요의 폭증으로 조만간 13,000루피아에 근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dwin 사장은 루피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모든 수출대금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인니 조합협회, 인니의 금융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

Dswandy Agusman 인니 조합협회 (Dekopin) 회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는 단지 전세계적인 불황의 전조일 뿐이며, 진정한 피해는 아직 인니로 전달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동 회장은 2조루피아 규모의 매출을 올리던 화학 공장의 도산을 예로 들며, 실물경제에서의 신용경색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20개의 은행이 도산한 만큼, 이로 인한 신용경색이 반드시 인니를 강타할 것이나 대중들은 아직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니의 외환보유고가 1년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조속히 IMF로부터 155억불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부동산 전문가들, 금융위기 여파 부동산으로 미칠 것을 경고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wait and see 성향을 보이고 있다.

남부술라웨시 주의회의 Jamaludin 의원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무엇보다 현재 9.5%인 중앙은행 금리의 압박으로 인해 투자개발사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수요가 분명히 있으나 막상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제한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20~30%의 계약금을 요구하던 개발회사들이 현재 50%가 넘는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절실히 필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S&P, 인니 달러화 장기국채 신용도를 BB- 등급으로 유지

S&P는 인니 정부의 내수시장 안정정책과 현재의 외환보유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니 달러화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을 BB-로 유지하였다.

S&P는 인니 루피아화 장기국채의 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BB+로 유지하였다. 중앙은행 Boediono 총재는 지난 10월 기준 외환보유액이 505억불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외환 통화 Swap 협정을 맺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IMF, 세계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재조정

IMF는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였다.

IMF는 산업국가들의 경제가 올해 0.5%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달리 -0.3%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IMF의 경제전문가 Olivier Blanchard는 지난 한달간 벌어진 소비자 신용지수의 하락과 금융산업의 불황을 지적하고 G-20 회담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금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니와 인도, 아시아에서 소비자 신용지수 가장 높은 나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지난 9월과 10월 조사된 소비자 신용지수 관련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도는 금번 신용위기에 가장 높은 소비자 신용지수를 보이고 있는 나라로 밝혀졌으며, 인도네시아는 덴마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동 서베이 결과, 호주는 5위, 뉴질랜드 8위, 베트남 9위, 중국이 10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경제통계 / 재계동향

● <경제동향> APEC 정상회의, 리마선언 채택

APEC 18개국 정상 및 말레이시아 부총리, 대만 및 홍콩 대표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회의를 갖고 “리마선언 - 새로운 아태지역 건설”을 채택했다.

지난 11.22(토)~23(일) 양일간 계속된 본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과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진전,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 환경문제와 재난관리에 대한 동 선언을 채택하였으나, 현재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노력이나 도하 라운드 내용은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APEC 정상들이 회의 기간 중 토의한 내용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도전에 대한 대처, 국제 무역 및 투자시스템의 개혁, 아태지역의 식량안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 협력강화와 능력배양, 반테러 노력의 강화, 지역경제를 위한 자본준비, 재난 대처,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APEC 설립 20주년을 맞는 내년도 정상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 APEC, IMF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 강화 및 개혁이 필요함에 동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APEC 정상들은 IMF,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Inter-America 개발은행 등 여러 국제금융기관들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를 유기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현재 IMF는 본 기능을 단독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동

의했다.

또한 APEC 회원국 경제장관들이 역내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 **아시아개발은행(ADB), 인니에 5억불 규모 차관지원 결정**

ADB는 Multitrance Finance Facility(MFF)를 통하여 인니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5억불 규모의 차관지원을 결정하였다.

이로서 어체(11.23) 달러당 12,300루피아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금일(11.24) 동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금융 전문가인 Edwin Sinaga는 ADB의 차관 지원 소식으로 인해 루피아 환율이 더 악화되지 않은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시아 각국의 통화들의 대 달러 환율이 매우 불안한 만큼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외국에 있는 인니인들이 보유한 달러화를 국내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방부장관, 인니 방산산업에 7억불 필요하다고 언급**

Juwono Sudarsono 국방부장관은, 인니 군대의 무기장비를 위한 방산산업에 총 6억~7억불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장관은 이를 위한 재원이 BNI, Mandiri 은행, BRI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위한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세부 지침이 부재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인니 자주국방산업을 위해 국내 은행으로 부터의 자금을 조달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 **전 대통령 후보자, 인니는 여전히 동인도 회사가 지배중이라고 언급**

전 대통령 후보자이며 개혁성향의 정치인인 Amien Rais는, 인니가 여전히 “동인도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회사들의 경제지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Amien Rais는 Exxon Mobil, Chevron과 같은 회사를 지적하며 식민지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Exxon Mobil의 가스관을 통한 싱가포르 가스 수출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또한, PT Freeport의 경우 인니에게 돌아오는 이윤이 0%이며, 대부분의 국영기업 주식이 외국자본에 잠식되어 있는 점, 광업, 통신업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Amien Rais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가보다 상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팔고 있는 자원의 주인인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인니 상공회의소,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촉구**

인니 상공회의소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정책수립을 촉구하였다. Hidayat 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유가격 인하, 대체에너지 가격의 결정, 내수공급의 무화 규정에 대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경유가격이 인하된다면 중소기업의 활성화, 식량공급증대, 교통비용이 감소되어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대체에너지 가격이 조속히 결정되어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5%의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였다. 향후 10,000MW 전력 추가공급사업을 위한 석탄 확보를 위해 석탄의 내수공급 의무화 규정 정비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정부, 2009년부터 휘발유 사용량 제한하기로 결정**

정부는 보조금이 지급된 휘발유(Premium)와 디젤(Solar)의 사용량을 오는 2009년부터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석유가스총국장은 이미 보조금 지급된 휘발유와 디젤 사용량이 쿼타를 초과하였다고 밝히고 최대

한 빨리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사용제한 방법은 2000년식 이후의 개인용 차량과 2,000cc 이상 개인용 차량의 보조금 지급된 휘발유 및 디젤 사용금지이다.

● **Bumi Resources 주가, 500루피아**

PT Bumi Resources 주식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금일 Bumi의 주가는 500루피아를 기록했다.

Bumi의 주가는 2008.10.6 거래종지 당시 2,175루피아, 2008.6월 당시에는 8,750루피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현재 500루피아의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Barkrie Group의 입장표명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Bumi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Barkrie Group의 다른 자회사들 주가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다.

● **PDI-P(투쟁민주당),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공동장관령 강도높게 비판**

PDI-P(투쟁민주당)의 한 대표자는 4개부처 장관이 발표한 내년도 임금관련 공동장관령이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본 공동장관령은 금번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내년도 지역 최저임금을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임금인상률이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PDI-P는 공동장관령으로 인해 향후 노동자들은 기업가들과 직접 임금 협상을 해야하며, 정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도 임금인상의 최대 폭이 올해 경제성장률 예정치인 6%에서 이미 제한되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PDI-P는 금융위기이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회사들도 있으므로, 그러한 회사들은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인 12%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관련사항

● 한국, 인니내 철도부문 투자 연기

인니 교통부의 투자실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니 철도부문 투자가 연기되었다.

한국의 POSCO와 캐니텍은 십억불을 투자하여 동부갈리만만에 석탄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투자자측 대리인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본 투자가 연기된다고 밝혔다.

교통부 철도총국은 인니 정부의 재정원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며, 철도 건설이 지방정부의 소관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 경영, 행정, 허가, 기술 등의 지원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철도 전문가인 Taufik Hidayat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의 현실화를 재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철도산업의 특성상 루피아의 약화로 인한 추가 부담도 투자 연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전문가인 Djoko Setijowarno는 분명히 지방정부가 철도건설을 위한 재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철도건설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노동이주부 장관, 한국은 여전히 인니의 주요 협력국이라고 언급

Erman Suparno 노동이주부장관은 한국계 투자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제1순위 투자 업종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인니에 1,200개의 한국기업이 활동중이고, 동 기업들이 5십만명의 인니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투자 추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rman 장관은 인니 섬유공업협회, 신발공업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현재 한국의 투자자들이 서부자와 수까부미 지역

에 6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위기가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한국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했다.

인니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주로 신발, 섬유, 임업, 전자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농업과 대체연료 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 KOICA-노동이주부, 한-인니 기술문화 협력센터 준공

지난 화요일(11.18) Erman Suparno 노동이주부 장관은, 동부 자카르타 짜라짜스에 소재한 한-인니 기술문화 협력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동 한-인니 기술문화 협력센터는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시설이며, 한국정부의 원조 300만불로 지어졌다.

Erman 장관은 동 센터가 향상된 인력송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향후 인니 노동자 송출 관련 모든 절차가 본 건물에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위한 건물활용 기준을 조속히 작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호영 주인니대한민국 대사는 송출절차가 빨라질수록 더 많은 인니 노동자가 한국으로 보내질 것이라 밝히고, 통상 인니 노동자가 한국으로 송출되기 위해 10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인니의 경쟁국인 베트남의 경우 소요기간이 60일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21,000명의 인니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인들은 인니 노동자를 부지런하고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 / 통상관련사항

● <FTA> 무역부, 아세안-인도 FTA협정 이행은 국가별로 다른 스케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

Gusmardi Bustami 무역부 국제무역협력 총국장은 아세안-인도 FTA 이행이 각 나라의 협정비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시작 일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FTA 협정 비준에 문제가 없는 나라는 2009. 1월, 비준 받지 못한 나라는 2009. 6월, 혹은 그 이후에 협정이행을 시작하게 된다.

Gusmardi 총국장은, 이는 인니가 2009. 1월 ~ 6월 사이에 반드시 협정비준을 끝마쳐야 한다는 말이며, 인니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은 본 기간 중에 예외품목 및 민감품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아세안-인도 FTA협정은 상품에만 유효하며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한국, 중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현재 본 협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CPO(Crude Palm Oil)와 RPO(Refined Palm Oil)의 최고 관세율, 그리고 인니의 약품시장 자유화 거부 등이다.

● WTO, 교착상태에 빠진 자유무역에 대해 논의

인니 대표 R. Widodo WTO 대사를 포함한 26개국 WTO 회원국 대표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Pascal Lami WTO 사무총장과 만나 자유무역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11.24 페루의 리마를 방문한 Mari Pangestu 무역부 장관은 세계의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로 식량생산품에 대한 특별보호관세, 개도국에 대한 편의 제공, 민감품목 및 일부 부문에 대한 특별 수혜의 문제를 지적하고, 오는 12월

WTO회의 이전에 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i 장관은 동 문제들 중에 보호관세의 적용이 인니 및 세계 각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예를들어 대량의 수입품에 대해 인니를 포함한 각국이 너무 쉽게 추가관세를 부가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Mari 장관은 향후 인니가 인니 농부들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나 선진국에서 걱정하는 바와는 달리 회담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인니-브라질,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

SBY 대통령은 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인니-브라질이 지식, 기술, 빈곤퇴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을 선포하였다.

SBY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은 외무부장관, 무역부장관, 농업부장관,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투자청장 등이 수행하였으며, 브라질리아 방문을 마친 SBY 대통령은 11.19 인니-브라질 수교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리오데자네이로로 향했다.

● 인니-멕시코, 양자 협력관계 강화

멕시코를 예방한 SBY 대통령은 Felipe Calderon Honojosa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최고위급 회담의 강화 등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경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대화 채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수출기간의 협력, APEC의 참여를 통한 양국간의 유대강화, 석유 탐사기술의 교류를 위한 Pertamina와 Pemex의 협력, 농업부문의 협력 및 외교관 교육훈련 강화에 대하여 향후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인니 10월 의류수출 47.5% 폭락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10월 의류 수출실적이 전월(2억9천400만달러)대비 47.5% 떨어져 1억9천93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중앙통계청 자료를 인용, 안파라통신이 5일 보도했다.

에르노비안 인니섬유회협(APD) 사무국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침체가 확산되고 있다”며 “수출국의 구매력이 떨어져 주문이 크게 감소했으며,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업체들은 이종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내년 1분기에 경기침체가 본격화돼 업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말연시 앞두고 식품과 생필품 가격 상승 전망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식품과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상승폭이 10%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상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자카르타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들 피트리 기간에 물가가 평균 10% 가량 상승했다. 연말에도 상승률이 그 수준을 넘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수급 균형에 달려 있다”고 상무부 내수유통 담당 수바기오 국장이 21일 말했다.

통상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단식월인 라마단과 최대명절인 이돌 피트리 그리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민간소비가 급증하며, 특히 쌀, 채소, 밀가루, 고기 및 식용유 같은 식품가격이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한다.

상무부는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 연휴를 앞두고 기초식품 재고를 늘리라고 지시하고, 정기적인 시장가격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통계청은 올해 초부터 10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96%였으며,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이 1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은행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11.5~12.5% 범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자카르타, 출퇴근 시간 조정 추진

자카르타 행정당국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현재 자카르타의 대부분 학교들은 오전 7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6시30분으로 30분 앞당겨진다.

당국이 계획에 따르면 북부와 중부자카르타 지역에 위치한 민간 업체는 오전 7시30분, 서부와 동부자카르타는 오전 8시 그리고 남부자카르타는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출근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7시30분으로 유지한다.

뿌리안또 부주지사는 교통정체 해소, 연료절약, 출퇴근시간 단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교통위원회 에디 뜻 헨드랏노 위원장은 당국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다만 시행 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려면 내년 8월에 시작되는 새 학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인디언의 세계를 어린 소년의 순수한 감각으로 묘사한 저서로 전미 서점상 연합회가 설정한 제1회 에비상 수상작.

따뜻한 조부모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소박하고 진실한 인디언의 삶과, 위선과 탐욕으로 점철된 백인사회의 모습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이 작품은, 첨단 문명의 시대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저자 포리스트 카터의 자전적인 소설로,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이어받은 저자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

주인공 “작은 나무”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저자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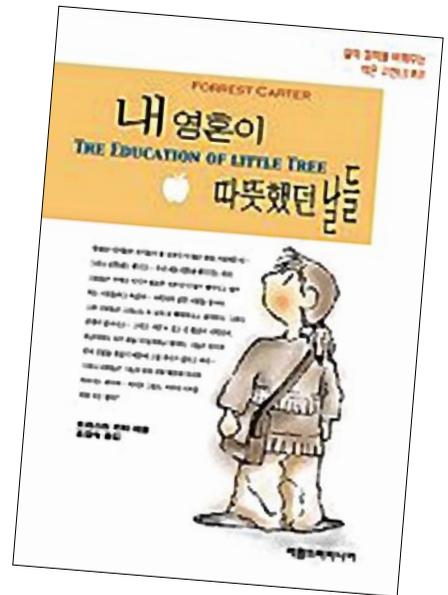
그러한 이 책의 주제는 “Ikin ye”라는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kin”은 “이해하는” 또는 “사랑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은 나무”에게 사랑과 이해는 같은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과 같다. 즉, 교육은 학습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에만, 오직 그럴 때에야 교육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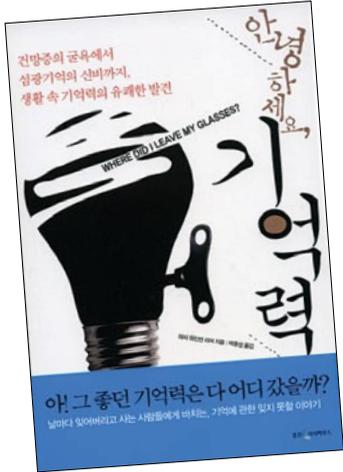
이 주제가 관통하는 가운데, “작은 나무”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의 국면을 맞게 된다.

먼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산에서 인디언 조부모님과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는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글에서 드러나듯이, 인디언은 아이들이 숲에서 한 일을 가지고는 꾸짖는 법이 절대 없다. “작은 나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환경 속에서, 자신 역시 동물들과 나무들과 대지와 바람까지도 이해하는 삶을 배워간다.

다음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교아원으로 옮겨져서 지내는 과정이다. “작은 나무”는 처음으로 이해와 용납이 전혀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곳에서 교사들은 학습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에게 학습자는 단지 자신들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져야 할 존재이고, 그들에게는 학습자의 기준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준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 하는 “작은 나무”는 이해가 전혀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구제 받을 수 없는 사생아에 불과하다.

이 근본적인 주제는, 현재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사해준다. 어떤 교사들은 마치 교육을, 자신의 기호에 딱 맞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인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한 인격의 성장을 돕는 것이며, 비인격적인 대상(애완동물 등)을 훈련하는 것과는 다르다. 학습자에게는 자신이 이해받고 용납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교육자가 자신을 이해(사랑)한다는 사실을 학습자가 느낄 때, 비로소 바른 관계가 맺어지며 학습자는 진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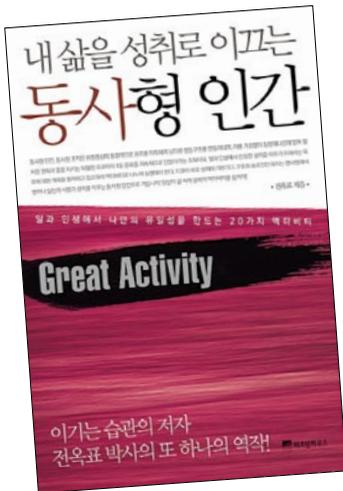
내 삶을 성취로 이끄는 | 동사형 인간

저자 전옥표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구호와 슬로건을 내세우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는 동사형 인간이 되라!

이 책은 일과 인생을 성취로 이끄는 동사형 인간이 되는 길을 안내한다. 2007년 『이기는 습관』을 통해 1등 조직이 될 수 있는 습관을 소개했던 전옥표 박사가 두 번째로 내놓은 야심작이다. 전작이 성공하는 조직을 만드는 전략사령관의 현장노하우를 전수했다면, 이번에는 개개인의 삶을 성취로 이끌기 위한 기본기를 전수한다.

모두 동사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성취의 행동구조를 21가지 액티비티로 나누고 쫓겨어 명확하게 짚어준다. 본문은 어떻게 해야 동사형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성취의 비밀, 소명으로써의 일에 대한 정체성, 세상에 없는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 목표와 꿈을 성취하기 위한 실행력 등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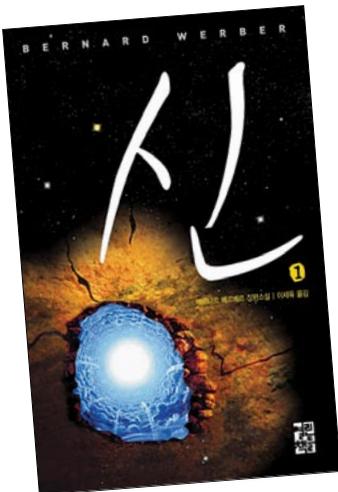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기억력

저자 마사 와인먼 리어 | 역자 박종성 |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건강증의 굴욕에서 섬광기억의 신비까지, 생활 속 기억력의 유쾌한 발견!

『안녕하세요, 기억력』. 자주 깜빡깜빡 잊는 건강증을 가진 사람들, 약속을 해도 자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를 기억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지닌 사람들. 이 책은 기억에 관한 흥미로운 교양서로, 부족한 기억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극복받은 사람이라며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인기 칼럼니스트인 저자 마사 와인먼 리어의 탄탄한 취재력과 필력이 돋보이는 이 책은, 날마다 '깜빡'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기억에 관한 에피소드와 새로운 지식을 위트 있게 엮어낸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망각하는가에서 남녀의 기억력 차이, 알츠하이머 신드롬까지 기억에 관한 갖가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신

저자 마사 와인먼 리어 | 역자 박종성 |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준비에서 출간까지 9년에 걸쳐 완성한 소설 『신』 제1권. <개미>, <너>, <천사들의 제국>, <파피용> 등의 작품을 통해 독특한 소재와 상상력을 선보였던 베르베르가 이번에는 인류의 운명을 놓고 신 후보생들이 벌이는 게임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었다. 저마다 개성 넘치는 신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 세상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한다.

<타나토노트>에서는 영계 탐사단, <천사들의 제국>에서는 수호천사로 활약했던 미카엘 팽송이 이번 소설에서는 신 후보생으로 등장한다. 신이 되기 위한 후보생으로 뽑힌 미카엘 팽송. 그를 비롯한 144명의 후보생들은 그리스 신화의 열두 신으로부터 신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몇몇 후보생이 의문의 공격으로 죽고, 미카엘 일행은 올림포스 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한밤의 탐험을 계속하는데...

자신을 더듬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딤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4224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	-----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컨덤 272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80 1075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전' 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기준 250 6532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대감집 726 4356
대장금 551 4311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동해 725 2856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끌라빠가딩 4585 4316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지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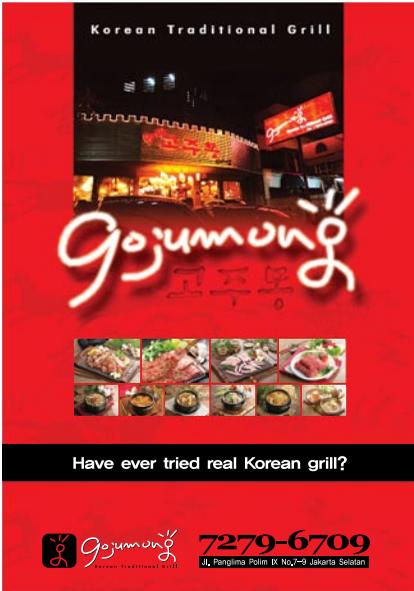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생활정보 가이드



Korean Traditional Grill

Gojumbo

Have ever tried real Korean grill?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 9 Jakarta Selatan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심리검사 학습능력 향상 진로탐색

知彼知己 百戰不殆

知己 - '자신'을 아는 방법,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에 있습니다. 인지 발달 수준, 학습 스타일, 직업 흥미, 학습 전략과 기술 등 자녀의 성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전문심리검사와 학습 케어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 K-WISC / K-WPPSI | ALSA 청소년 학습전략검사
성격유형검사 MBTI / MMTC | LST 학습기술진단검사
직업흥미&진로성숙도&직업적성검사 | 자기조절학습법

021-546-4531 | 0813-8082-8282
리뽀까라와찌 아미르다푸라 아파트 A동 로비 G호

Berlitz Helping the World Communicate

DO YOU SPEAK

Berlitz ENGLISH & INDONESIAN?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영어, 인도어 학습법

Hotel Intercontinental MidPlaza Jakarta
Shopping Gallery LG R-26 Jl. Jend. Sudirman Kav. 10-11 JKT
Phone : 021-2514589 E-mail : berlitz@dnet.net.id

Plaza Dua
Jl. Metro Duta Niaga BA 2/43 Pondok Indah JKT
Phone : 021-7510452 E-mail : berlitz2@dnet.net.id

Website : www.berlitz.com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횡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칠보산	4585	1161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A 갈비	7278	0550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뽀)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리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한컴	5435	3007
www.indoweb.org	5694	0805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	-----	------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눈술	4586	1233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본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발리 (지역번호 0361) ↓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KAYA TOUR		
DongWha tour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UNDA DUTA		
SATYA TOUR	283	305
RED CAP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2가지 맛 선택

커피: 밀크, 인삼, 블랙

JOA Coffee
Korean Red Ginseng

그록한 인삼의 향기를 느껴세요
Minuman kesehatan khasiatnya terasa banget!

자판기 판매 및 임대 (Mr. 박)
HP. 0815 7432 7769
Esia. 021) 9940 9200

40년 전통의 Lim Tailor
(Mr. 임연식)

자카르타 남성의 멋을 책임집니다.

양복점 오픈
(청기와 앞)

· 좋은 가격, 고급 퀄리티
· 각종 회사 유니폼을 맞춰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자택으로 방문하여 맞춰드립니다.

0811 1873 382 / 0815 1059 0827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머르타나디(가구점)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롱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한인회 지정 가맹점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 레스토랑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이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TER	10%	
장터 레스토랑	Jl. Raya Batavia Blok LC 08, No. 9-10 Kelapa Gading Jakarta Timur	4585-4302		10%	
뉴서울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TER, BCA	5%	

한 권의 일기 속 충격적인 비밀

런던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안나(나오미 왓츠)'는 14살의 러시아 소녀가 아이를 낳고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아기의 연고를 찾아주기 위해 소녀가 남긴 일기장에 쓰여진 곳으로 무작정 찾아간 그녀는 그곳에서 러시아 마피아 조직의 운전수인 '니콜라이(비고 모텐스)'를 만나게 된다.

구원도 용서도 없는 세계

니콜라이의 조직은 동유럽에 근거를 둔 런던 최대 범죄조직 '보리 V 자콘'. 조직의 보스인 '세미온(아민 물러-스탈)'은 겉으로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중후하고 온화한 경영주이지만 실상은 완벽한 가면을 쓴 냉정하고 잔인한 인물이다. 한편 그의 아들 '키릴(뱅상 가셀)'은 조직의 이인자로 아버지보다는 니콜라이와 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죄는 상처를 남긴다...

운명적으로 서로에게 끌린 니콜라이와 안나는 함께 아이의 가족을 찾게 된다. 그 과정에서 소녀의 죽음이 조직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다. 조직의 충성과 안나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는 니콜라이. 그리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자꾸만 니콜라이에게 빠져드는 안나.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조직은 점점 그들을 조여오는데.....

비밀을 파헤칠수록 그들의 신변은 위협해지고, 마침내 그들은 죽은 소녀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과 만나게 된다!





2008년, 사건 사고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미약, 성형, 섹스 스캔들보다 더 무서운 과속 스캔들이 온다!

한때 아이돌 스타로 10대 소녀 팬들의 영원한 우상이었던 남현수(차태현).

지금은 서른 중반의 나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나가는 연예인이자, 청취율 1위의 인기 라디오 DJ.

어느 날 애청자를 자처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오던 황.정.남(박보영)이 느닷없이 찾아와 자신이 현수가 과속해서 낳은 딸이라며 바둑바둑 우겨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애까지 달고 나타나서...

집은 물론 현수의 나와바리인 방송국까지. 어디든 물불 안 가리고 쫓아다니는 스토키 정남으로 인해 완벽했던 인생에 태클 한방 제대로 걸린 현수. 설상가상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 그에게 정남과 스캔들까지 헝싸이게 되는데...

나 이제, 이거 한방 터지면 정말 끝이다! 끝!!

Blindness 눈먼자들의 도시

전 인류가 눈이 먼 세상...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남자가 차도 한 가운데서 차를 세운다. 이후 그를 집에 데려다 준 남자도, 그를 간호한 아내도, 남자가 치료받기 위해 들른 병원의 환자들도, 그를 치료한 안과 의사도 모두 눈이 멀어버린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이상현상.

눈 먼 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그들을 병원에 격리 수용하고, 세상의 앞 못 보는 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인다. 그리고 남편을 지키기 위해 눈먼 자처럼 행동하는 앞을 볼 수 있는 한 여인(줄리안 무어)이 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동에서 오직 그녀만이 충격의 현장을 목격하는데...





12월 공지 사항



국민연금수급자 정기확인 안내

- 개요
 - 국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확인을 실시합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외이주(현지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해외송금신청자 등
 - 정기 수급권 확인 실시 시기
 - 매년 4/4분기 (10월경)
 - 연금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대상
 - 연금수급자의 사망,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 입양, 파양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와의 신분(사망, 이혼, 입양, 파양 등) 및 생계유지 변동
 -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호전 또는 악화
 - 연금 수령계좌번호, 주소, (국제)전화, 휴대폰 번호 변경 등
 - ※ 공단의 정기수급권 확인에 의한 자료 요구시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시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공단에서 송부한 서식)
 - 여권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양가족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포함)
 - 등록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거주지로 변경하여 제출
 -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수급권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거주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
 - 해외송금 신청 안내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제도 및 급여 관련 사항,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07.11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08.06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가 설치, 9.1부터 위로금 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동 법은 사망, 행방불명의 경우 2천만원, 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급, 미수 월급 등이 있는 경우 1엔을 2천원으로 환산 지급 등을 규정
2. 상기 관련, 위원회 측이 작성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안내문” 및 “재외공관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처리 요령” 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처리 지침은 별첨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 관련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접수 처리 기준” 참고

자세한 사항은 주인니한국대사관 홈페이지참조
<http://idn.mofat.go.kr/kor/as/idn/main/index.jsp>

제6회 국제친선바둑대회 안내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4개국 대항 친선바둑대회
 매년 한국,중국,인도네시아,일본 바둑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대항 단체전과 단소유자와 급소유자로 나뉘어 개인 토너먼트전이 펼쳐집니다.

일시 : 2008년 12월 14일(일) 09시~17시
 장소 : 일본국제교류기금 자카르타일본문화센터
 주최 : 일본국제교류기금 자카르타일본문화센터
 Summitas 1,2nd Floor,
 Jl. Jend. Sudirman Kav.61-62 Jakarta

방재웅 (한국바둑협회)
 Tel : 021-591-8625
 HP : 0816-995-495
 Email :
 jwbang7100@hotmail.com

유이 에이코 (일본재단)
 Tel : 021-520-1266
 HP : 0811-855-416
 Email : yui@jpf.or.id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유의사항 안내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리
오니, 관련업무 처리시 참고바랍니다.

1. 한-아세안 FTA C/O(AK-Form) 발급시 C/O 뒷면에 부착된
Overleaf Note를 반드시 출력, 수입업자에게 송부
2. C/O는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인쇄
3. C/O에 필수 정보(특히 8번란 원산지 기준)가 누락되지 않
도록 기재

담당 :

김형태 참사관, Tel : 520-1915, Fax : 525-4159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외국인 관련시설 출입 및 치안불안 지역 (파푸아) 여행시 신변안전 주의

1. 9.20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소재 메리어트 호텔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60여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부상당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이슬람권에서 외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 교민 여러
분들께서는 르바란 전후 외국인 관련시설(호텔, 나이트 클
럽 등) 출입시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9 자카르타 소재 모 호텔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한 바 있음
을 참고바라며, 외국인 관련시설 출입시 가급적 출입구에서 면쪽
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2. 한편 최근 파푸아 지역내 분리독립주의자들의 활동이 증
가하는 가운데 프리포트 광산에서 연쇄 폭발사건이 발생하
는 등 동 지역 치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바, 교민 여러분
께서는 동 지역 여행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상담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MP.0816-1911245, Tel. 021) 529-60643)

상담범위 : 기업법무.투자컨설팅.M&A.부동산.저당권.자원개발.채
권회수.파산관재.가사.상속.지적재산권.소송.중재.재단법인.출입국
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번호사)

ysnngmin@centrin.net.id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2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 ◆진주 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 침부)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 0816-1390-333

대한항공 동계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8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
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1:55	06:50+1	매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30	매일
덴파사르 > 인천	KE630	03:35	11:30	월,일
		00:45	08:40	화~토
인천 > 덴파사르	KE629	17:15	23:25	월~,금
		20:05	02:15+1	토,일

2. 기간: 2008. 10. 26~

또한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선 연
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습니다.

-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3번 : 영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4번 : 중국어 서비스
- 5번 : 일본어 서비스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84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자일리톨함유로
더 깔끔하고
더 부드럽다!



깨끗한 아침, 참소주

WWW.CHARMSOJU.COM



참소주 전속모델 이수경



HYUNDAI
TRUCKS & BUS

HD MIGHTY TRUCK

125 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PT. KORINDO MOTORS JL. Raya Serang Km 23-24, Cibadak, Cikupa,
Tangerang 15710, Banten, Indonesia Ph. +62 21 596 0445 | Fax. +62 21 596 2118